침착할 것

COP30 edition

침착할 것 パニクるな COP30 edition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Brazil Amazon now!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小さなダムから始める心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米国不在のCOP30と争点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地球温暖化交渉の回顧と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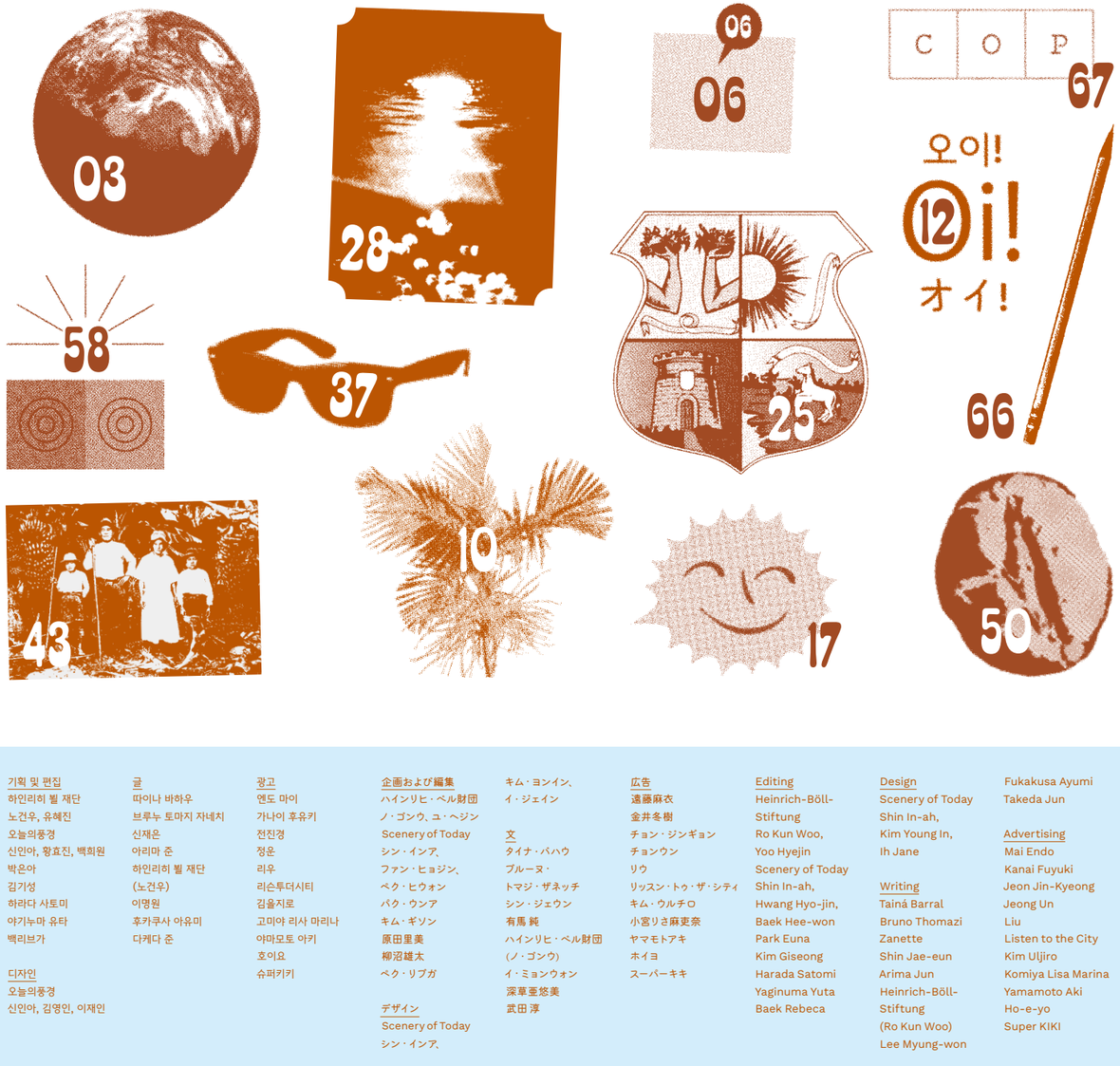
コーヒーが高くなるか、私たちが変わるか
SPECIAL!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고난의 여로
苦難の旅路
벨렘에 가져가는 5가지 질문
ベレンに持って行く5つの問い

Brazil Amazon ♥Solidarity♥

Contents

03 편집부의 말
03 編集部の一言
04 벨렝 지도
04 ベレンの地図
06 벨렝을 맛보고 즐기는 법
06 ベレン味わって楽しむ方法
10 벨렝 트리비아
10 ベレン 11 の物語
12 생존과 저항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12 生存と抵抗のブラジルポルトガル語
17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17 地球温暖化交渉の回顧と展望
25 미국 없는 COP30과 쟁점들
25 米国不在の COP30 と争点
28 작은 댐부터 시작하는 마음
28 小さなダムから始める心
37 벨렝에 가져가는 5가지 질문
37 ベレンへ持って行く 5 の問い
43 고난의 여로 : 오키나와인의 브라질 이민사
43 苦難の旅路 : 沖縄人のブラジル移民史
50 커피가 비싸지게 될까? 우리가 변할까?
50 コーヒーが高くなるか、私たちが変わるか
58 패닉에 도움이 되는 눈 운동
58 パニックに効く目のストレッチ
66 패닉에 도움이 되는 메모장
66 パニックに効くメモ帳
67 십자말풀이
67 単語パズル



기획 및 편집
하인리히 뵐 재단
노건우, 유혜진
오늘의풍경
신인아, 황효진, 백희원
박은아
김기성
하라다 사토미
아기누마 유타
백리브가

디자인
오늘의풍경
신인아, 김영인, 이재인

글
따이나 바하우
브루누 토마지 자네치
신재은
아리마 준
하인리히 뵐 재단
(노건우)
이명원
후카쿠사 아유미
다케다 준

광고
엔도 마이
가나이 후유키
전진경
정운
리우
리슨투더시티
김율지로
고미야 리사 마리나
야마모토 아키
호이요
슈퍼키키

企画および編集
ハインリヒ・ベル財団
ノ・ゴンウ、ユ・ヘジン
Scenery of Today
シン・インア、
ファン・ヒョジン、
ペク・ヒウォン
パク・ウンア
キム・ギソン
原田里美
柳沼雄太
ペク・リブガ

デザイン
Scenery of Today
シン・インア、
キム・ヨンイン、
イ・ジェイン

文
タイナ・バハウ
ブルーヌ・
トマジ・ザネッチ
シン・ジェウン
有馬 純
ハインリヒ・ベル財団
(ノ・ゴンウ)
イ・ミョンウォン
深草亜悠美
武田 淳

広告
遠藤麻衣
金井冬樹
チョン・ジンギョン
チョンウン
リウ
リッスン・トゥ・ザ・シティ
キム・ウルチロ
小宮りさ麻更奈
ヤマモトアキ
ホイヨ
スーパーキキ

Editing
Heinrich-Böll-Stiftung
Ro Kun Woo,
Yoo Hyejin
Scenery of Today
Shin In-ah,
Hwang Hyo-jin,
Baek Hee-won
Park Euna
Kim Giseong
Harada Satomi
Yaginuma Yuta
Baek Rebeca

Design
Scenery of Today
Shin In-ah,
Kim Young In,
Ih Jane

Writing
Tainá Barral
Bruno Thomazi
Zanette
Shin Jae-eun
Arima Jun
Heinrich-Böll-Stiftung
(Ro Kun Woo)
Lee Myung-won
Fukakusa Ayumi
Takeda Jun

Advertising
Mai Endo
Kanai Fuyuki
Jeon Jin-Kyeong
Jeong Un
Liu
Listen to the City
Kim Uljiro
Komiya Lisa Marina
Yamamoto Aki
Ho-e-yo
Super KIKI

"아시다시피, 은하계 외곽 개발 계획에는 귀하의 항성계를 통과하는 초공간 우회 도로 건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행성은 철거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철거 절차는 지구 시간으로 2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구는 파괴된다. 알파센타우리 구청 게시판에 반세기 동안 붙어 있던 공고를 무시하고, 돌고래들의 신호를 끝내 해독하지 못한 대가로. 한편, 주인공 아서 덴트는 취재차 지구에 머물던 외계인 친구 포드 프리펙트 덕에 히치하이킹으로 철거선에 오르게 된다. 그는 커다란 글씨로 "침착할 것(Don't Panic)"이라 적힌 안내서 한 권을 들고 은하수를 여행한다. 이것이 1977년 처음 녹음된, 더글러스 애덤스(Douglas Adams)의 라디오 드라마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의 도입부다.

COP30을 앞두고 우리가 만든 잡지의 제목도 여기서 따왔다. 이 안내서가 벨렝이라는 도시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라는 긴 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골디락스 행성 조사 위원회'의 관료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들이 지구 철거를 보류하고 있는 덕에 우리가 이 잡지를 만들 수 있었다.

더글러스 애덤스가 "침착할 것"을 권했다면, 그로부터 42년 뒤인 2019년, 그레타 툰베리는 "공포를 느껴야 한다"라고 외쳤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멈추며, 인류는 뜻밖의 유예 시간을 얻었다. 위원회는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벨렝에서 새로운 기후목표들을 모았을 때, 10년 전에 합의했던 것처럼 "산업화 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현저히 낮게" 유지할 수 있을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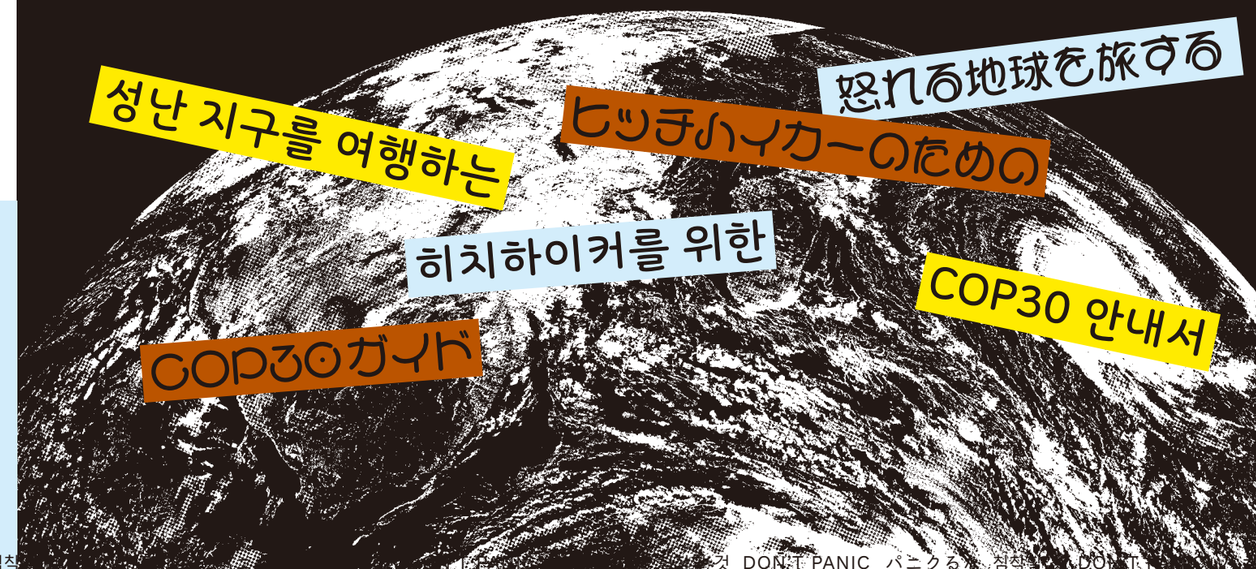
만약 벨렝에서 이 잡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마주친다면 가볍게 물어보자. 혹시 위원회에서 나온 건 아닌지. 그가 쉽게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면, COP30 맛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자. 적은 수업료로 히치하이킹 법을 배운다면, 지구가 언젠가 철거된다 해도 마음 한구석은 든든할 테니까.

「おそらくご存じだと思いますが、銀河系辺境区開発計画にもとづき、この太陽系内を通過する亜空間高速通路が建設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お気の毒ですが、この惑星も取り壊し予定に入っております。撤去は地球時間で 2 分以内におこなわれます。以上」そして主人公アーサー・デントは、大きな字で「パニクるな (Don't Panic)」と書いてある一冊の案内書を手に、銀河を旅することになる。これは 1977 年に初めて録音された、ダグラス・アダムス (Douglas Adams) のラジオドラマ『銀河ヒッチハイク・ガイド』の冒頭である。

COP30 を前に私たちが編んだこの雑誌のタイトルも、そこからとってきた。このガイドがベレンという都市、そして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 (COP) という長い道のりを理解する一助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ゴルディロックス惑星調査委員会」の官僚たちにも感謝を込めて。彼らが地球の取り壊しを見送ってくれているおかげで、私たちはこの雑誌を作ることができたのだから。

ダグラス・アダムスが「パニクるな」と提示したとするのであれば、42 年後の 2019 年、グレタ・トゥーンベリは「恐怖を感じてほしい」と提唱した。そのすぐ後に COVID-19 のパンデミックが蔓延し、世界は混乱に陥った。人類は思わぬ猶予を与えられその様を、委員会は相変わらず見守っている。今回ベレンで新たな気候変動会議を参集する時には、10 年前に合意した「産業化前に比べて地球平均気温上昇を摂氏 2°C 以下に抑える」ことができるかを。

もし、ベレンでこの雑誌を持っている人に出会ったら、軽く尋ねてみよう。 ひょっとして委員会の方ではないでしょうか、と。その人がすぐに正体を明かさないようなら、COP30 味のアイスクリームを一つ買ってあげればいい。わずかな授業料でヒッチハイクの作法を学べるのなら、たとえ地球がいつか取り壊されるとしても今よりも少しだけ心強くなれるから。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Welcome to Belé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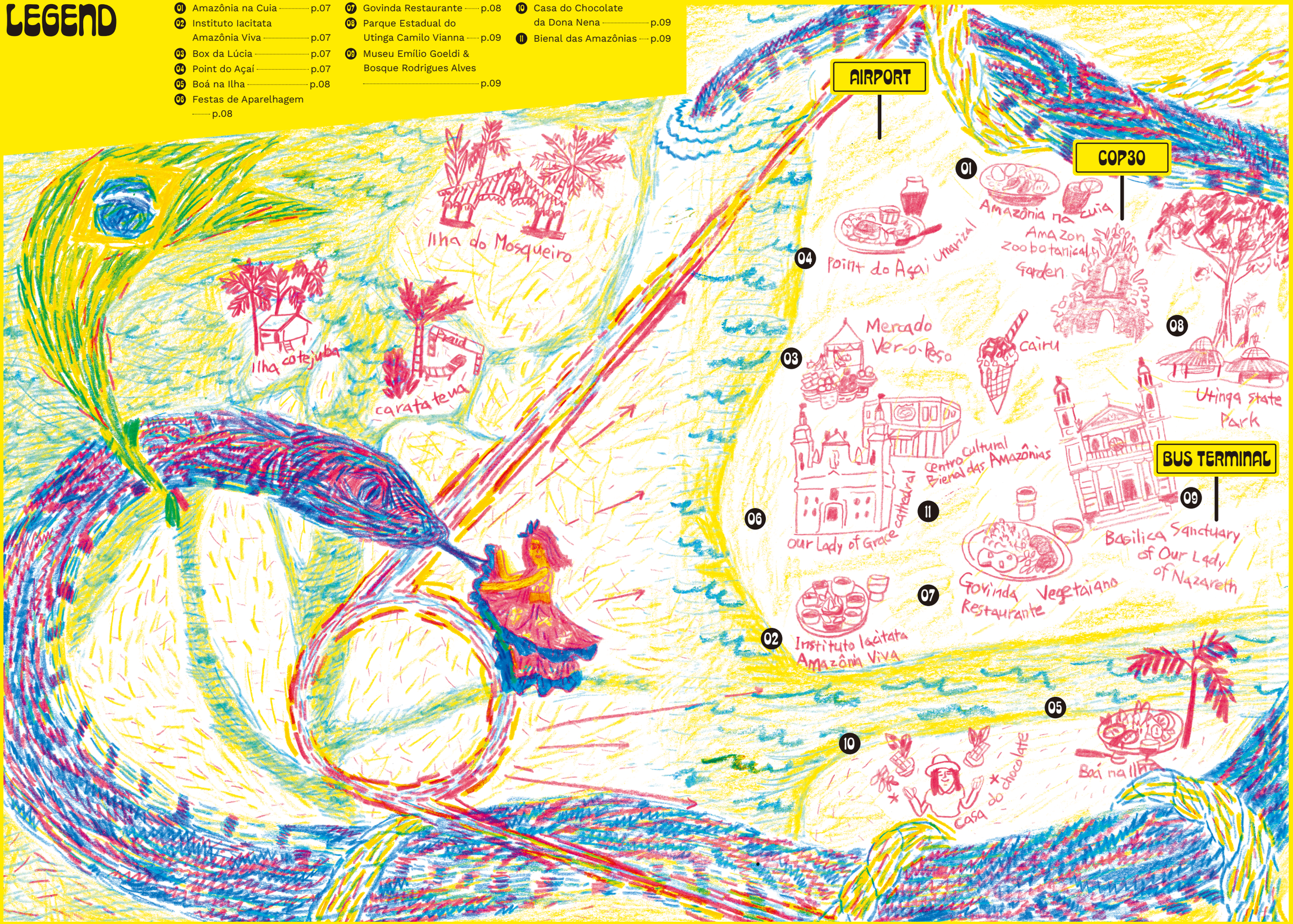
ようこそベレンへ

欢迎来到贝伦

벨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LEGEND

01 Amazônia na Cuia p.07
02 Instituto Iacitata Amazônia Viva p.07
03 Box da Lúcia p.07
04 Point do Açaí p.07
05 Boá na Ilha p.08
06 Festas de Aparelhagem p.08
07 Govinda Restaurante p.08
08 Parque Estadual do Utinga Camilo Vianna p.09
09 Museu Emílio Goeldi & Bosque Rodrigues Alves p.09
10 Casa do Chocolate da Dona Nena p.09
11 Bienal das Amazônias p.09



artwork © Jun Umekawa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벨렝을
맛보고 즐기는 법

06

ベレンを
味わい尽くす方法

TASTE and INDULGE Belém

낯선 곳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맛집과 즐길거리를 체크하는 것. 벨렝에서 나고 자란
따이나 바하우가 벨렝의 맛집과 즐길거리를 소개한다.
이것만 알면 벨렝과 친해지는 건 시간문제!

見知らぬ街を身近にぐっと感じるいちばんの方法は?
それは、おすすめの店と楽しいスポットをチェックすること。
ベレン生まれベレン育ちのタイナ・バハウが、とっておきの
グルメとアクティビティを紹介する。これさえ知っていれば、
ベレンと仲良くなるのは時間の問題!

TOUR GUIDE

photo © Alfonso Castro

TAINÁ BARRAL
따이나 바하우 ♥ タイナ・バハウ

벨렝의 구아마강(Rio Guamá) 연안에서 나고 자란 언론인이자 커뮤니케이터, 문화기획자. 꾸이아 문화협회(Associação Cultural Na Cuia)를 이끌며 환경정의, 인권, 커뮤니케이션의 민주화 등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있다.
ベレンのグアマー川 (Rio Guamá) のほとりで生まれ育ったジャーナリストであり、コミュニケーター、文化人類学者。クイア文化協会 (Associação Cultural Na Cuia) を率い、環境正義、人権、そ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民主化をテーマとしたプロジェクトを手がけている。

07

01

Amazônia na Cuia

아마조니아 나 꾸이아
アマゾニア・ナ・クイア

instagram @amazonianacuia
Rua Domingos Marreiros, 851 - Umarizal, Belém

파라 주의 전통 음식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입니다. 특별한 꾸이아(Cuia) 나무 열매로 만든 그릇에 담긴 데구스따써웅 나 꾸이아(Degustação na Cuia)를 선보입니다. 브라질 무형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방식은 원주민의 기술과 파라의 음식 문화를 한데 이어줍니다.
パラーの伝統料理を体験したいならぜひここへ。特別なクイア (Cuia) の実で作られた器に盛られるデグスタサォン・ナ・クイア (Degustação na Cuia) は、ブラジルの無形文化遺産にも登録されている。先住民の技術とパラーの食文化がひとつに溶け合う特別なスタイル。

tip! 다양한 조합으로 나오는 테이스팅 메뉴. 친구들과 나눠 먹을 때 더 즐겁습니다.
バリエーション豊かなテイスティングメニュー。仲間とシェアすれば楽しさ倍増。

02

Instituto Iacitata Amazônia Viva

잉스찌뚜뚜 이아시따따 아마조니아 비바
インスティトゥト・イアシタタ・アマゾニア・ヴィヴァ

instagram @iacitata_
Tv. Padre Champagnat, 284 - Cidade Velha, Belém

이곳은 레스토랑 그 이상입니다. 벨렝의 음식 문화를 이어가는 작은 허브이자, 공동체 네트워크를 지지하는 공간이죠. 독성 물질과 농약을 쓰지 않은 재료만 사용하고, 접시마다 땅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원주민 지역, 킬롬볼라(Quilombola) 공동체, 가족농, 토지개혁을 위해 싸우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ここはレストランという枠組みを超えている。ベレンの食文化をつなぐ小さなハブで、地域コミュニティを支える場所でもある。農薬や有害物質を使わない食材だけを使用した料理には、一皿ごとに土地と人との物語が込められている。先住民地域やキロンボーラ (Quilombola) 共同体、家族農業、土地改革の活動も支援している。

tip! 버펄로 고기로 만든 프리투 두 바케이루 혹은 '탈식민 메뉴'라 불리는 메누 두 까페 데꼴로니아우를 경험해보세요.
Frito do Vaqueiro
Menu do Café Decolonial
バッファロー肉のフリト・ド・ヴァケイロまたは“脱植民地メニュー”と呼ばれるメニュー・ド・カフェ・デコロニアウ。

03

Box da Lúcia

벅씨 다 루시아
ボックシ・ダ・ルシア

Rua do Una esquina com a rua dos bancários, 12, Telégrafo
Ver-o-Peso, Boulevard Castilhos França, 234 - Comércio

벨렝의 유명한 베르우뻬주(Ver-o-Peso) 시장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성들, 일명 보이에이라스(boieiras)의 맛을 그대로 전해주는 곳입니다. 루시아 토레스 셰프가 운영하는 두 가게는 시장 안팎에서 영업 중이며, 집밥 같은 따뜻한 맛을 제공합니다.
ベレンの名物市場ヴェロ・ペーゾ (Ver-o-Peso) で腕を振るう女性たち「ボイエイラス(boieiras)」の味を楽しめる店。ルシア・トーレスシェフが手がける店は市場の中と外にあり、どちらも家庭料理のような温かみのある味わいを楽しめる。

tip! 생선, 새우, 게가 어우러진 진한 마리스까다를 추천해요.
Mariscada
魚、エビ、カニがぎゅっと詰まった濃厚な「マリスカーダ」がおすすめ。
Mariscada

04

Point do Açaí

뽕잉치 두 아싸이
ポイント・ド・アサイー

instagram @pointdoacaibelem
Boulevard Castilhos França, 744 - Campina
Rua Municipalidade, 897 - Reduto, Belém

벨렝을 찾는 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여기서는 아싸이를 설탕 없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사이드로 생선, 통곡물, 저민 고기, 새우 등을 주문하면 지역의 식문화를 깊게 느낄 수 있지요.
ベレンを訪れるなら必ず立ち寄りたいスポット。ここでは砂糖を加えず、伝統的な方法そのままでアサイーを楽しめる。魚、全粒穀物、薄切り肉、エビなどを一緒に注文すれば、地域の食文化を一層深く感じられる。

tip! 북부 브라질 전통 그대로 아싸이를 무가당으로. 흰색 아싸이나 바카바 같은 변형된 아싸이도 꼭 시도해보세요.
ブラジル北部の伝統的な料理そのままの無糖アサイー。白いアサイーや珍しいバリエーションのバカバもぜひ試してみてほしい。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05

Boá na Ilha

보아 나 일랴
ボア・ナ・イリヤ

instagram @boanailha
Furo da Paciência, Ilha do Combu
(주로 주말에 영업 | 主に週末に営業)

벨렝강 건너 꼼부섬(Combu Island)에 자리한 가족 식당입니다. 강을 건너는 짧은 배 여행으로 시작해, 아마존 강변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음식을 즐길 수 있지요. 따뜻한 환대 속에서 전통 음식을 맛보거나, 강에 몸을 담그고 열대 과일로 만든 상큼한 음료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작은 휴양지 같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ベレン川向うのコンブ島 (Combu Island) にある家族経営レストラン。短い船旅を楽しんだ後には、アマゾン川岸のゆったりとした雰囲気の中で料理を堪能することができる。温かなもてなしと共に伝統料理を味わい、川に足を浸したり、トロピカルフルーツのドリンクを飲んだりと、ちょっとしたリゾート気分も味わえる。

tip! 바나나잎에 감싸 구운 민물고기 땀바낑.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압도적입니다. 벨렝 시내 꽁도르 지역, 베르나르두사이앙 아베니에 있는 후이바라타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Tambaqui バナナの葉で包み焼きにした淡水魚タンバキ。豊かでまったりとした旨みに圧倒される。ベレン市内 Condor コンドル地区、 ベルナルド・サイアオン通り Bernardo Sayão Avenue のフイ・バラタ船着場 Ruy Barata から船で渡って行くことができる。

06

Festas de Aparelhagem

페스타스 지 아파레랴쟁
フェスタス・ジ・アパレリャージェン

instagram @crocodilotudaoofc / @rolesporbelem

벨렝의 변두리에서 시작된 큰 규모의 파티 문화입니다. 눈부신 조명과 폭죽, 미래적인 무대 장치, 그리고 강렬한 음향이 어우러져 밤을 압도합니다. 악어나 버펄로 같은 동물 모양의 무대 위에서 DJ가 연주를 시작하면, 처음 온 사람도 그 규모와 에너지에 넋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주 열리는 만큼, 주간 일정표나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ベレン郊外から発祥した大きなパーティ文化。まばゆい照明や花火、近未来なステージ装置、強烈なサウンドが夜を圧倒する。ワニやバッファローをかたどったステージセットの中で DJ がプレイを始めれば、初めて訪れる人もそのスケールとエネルギーに引き込まれるはず。毎週開催されているので、週間スケジュールや公式インスタグラムをチェックすれば簡単に参加できる。

07

Govinda Restaurante

고빙다 헤스토랑치
ゴヴィンダ・ヘストランチ

instagram @govindarestaurante
Rua dos Mundurucus, 1800 - Batista Campos, Belém

인도 요리와 아마존의 풍미가 만난, 채식·비건 위주 식당입니다. 다양한 뷔페식 메뉴가 준비되어 있고, 육류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마존 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インド料理とアマゾンの風味が出会う、ベジタリアン・ヴィーガン中心のレストラン。バイキング形式でメニューも豊富。肉を食べない人でもアマゾン料理を味わえる貴重な場所。

tip! 파라 지역 전통 요리인 마니쏘바(Maniçoba)의 채식 버전. 카사바 잎을 갈아 4~7일 동안 푹 끓여야 완성되는 요리인데, 깊은 풍미가 살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식 버전의 아마존 요리를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여러 선택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パラー伝統の「マニソバ (Maniçoba) 」のベジタリアン版。キャッサバの葉をすりつぶし、数日かけて煮込んだ奥深い味わい。その他にもベジタリアン向けのアマゾン料理が充実。

08

Parque Estadual do Utinga Camilo Vianna

우칭가 주립공원
ウチンガ州立公園

instagram @parquedoutingabelem

도심 속에서 모험과 자연을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꼭 들러야 할 곳입니다. 자전거 대여, 튜브 타기, 암벽 등반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지역 특산품을 만날 수 있는 생물다양성 장터도 열립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단순히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넘어 아마존 생태계를 가까이서 만나는 배움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都市の中で冒険と自然を同時に体験したいなら、必ず訪れたい場所。自転車のレンタル、チューブ遊び、ロッククライミングなど屋外活動が豊富で、週末には地域特産品に出会える、生物多様性の市場も開かれる。保護区に指定されたこの公園は、観光のスポットを超えて、アマゾン生態系を間近で見ることができる学びの場でもある。

09

Museu Emílio Goeldi & Bosque Rodrigues Alves

에밀리오 고엘지 박물관 & 호드리게스 알베스 숲
エミリオ・ゴエルジ博物館＆ホドリゲス・アルベスの森

instagram @museuemiliogoeldi / @prefeiturabelem

도시 한복판에서 아마존의 생태를 깊게 체험할 수 있는 두 장소입니다. 고엘지 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동식물과 문화를 다루는 전시를 만날 수 있고, 호드리게스 알베스 숲은 산책로와 역사적인 정원이 어우러져 있어 도시를 벗어나지 않고도 숲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줍니다.
都市の真ん中でアマゾンの生態を深く体感できる 2 つのスポット。ゴエルジ博物館では地域の動植物や文化を扱う展示が見られ、ホドリゲス・アルヴェスの森は遊歩道と歴史的な庭園を備え、街を離れずとも森の中にいるような気分を味わえる。

10

Casa do Chocolate da Dona Nena

도나 네나의 초콜릿 집
ドナ・ネナのチョコレートハウス

instagram @filhadocombu

아마존에서 직접 재배한 카카오로 만드는 100퍼센트 유기농 수제 초콜릿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주인장 도나 네나(Dona Nena)의 숲 브리가데이루(Brigadeiro·브라질식 초콜릿 디저트)로도 유명한데, 맛만큼이나 도나의 따뜻한 환대가 인상 깊습니다. 섬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고, 벨렝 시내 매장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アマゾンで直接栽培したカカオから作る、100% オーガニックの手作りチョコレートを味わえる人気スポット。名物はオーナーのドナ・ネナの森ブリガデイロ（ブラジル風チョコレートデザート）で、味もさることながら、温かいもてなしも印象に残る。コムブ島とベレン市内に店舗がある。

11

Bienal das Amazônias

아마조니아 비엔날레
アマゾニア・ビエンナーレ

instagram @bienalamazonias

아마존과 카리브 지역 8개국, 74명의 예술가와 예술 단체가 모이는 대규모 전시입니다. ‘이주’ ‘기억’ ‘자연과 문화의 관계’ 등의 주제를 통해, 아마존이 단순한 숲이 아니라 살아 있는 역사이자 현재임을 보여줍니다. 2025년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열리며, COP30을 찾는 이들에게는 꼭 들러야 할 문화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アマゾンやカリブ地域 8 か国から、74 名のアーティストが集う大規模な国際展。「移動」、「記憶」、「自然と文化の関係」といったテーマを通じて、アマゾンが単なる森ではなく今も生き続けている歴史であり現在であることを示す展示となっている。2025 年 11 月 30 日まで開催、入場無料。COP30 を訪れる人々にとっては必見の文化体験となるだろう。

10

까림버의 울림

カリンボーの響き

벨렝과 파라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가 바로 까림버입니다. Carimbó 이곳에서는 원주민 문화와 아프리카, 유럽 문화가 한데 얽혀 춤과 음악, 풍습으로 이어져왔습니다. 꽃무늬 치마가 원을 그리며 휘날리고, 북소리가 땅을 울리면, 이 축제의 원 안으로 들어가보세요. 함께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다 보면, 까림버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살아 있는 문화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ベレンとパラー地域を代表する伝統文化であるカリンボー。Carimbó 先住民、アフリカ、ヨーロッパの文化が絡み合い、踊りや音楽が習俗として受け継がれてきた。花柄のスカートが円を描くように舞い、太鼓の音が地を震わせる。輪の中に入って手をたたき、体を揺らせば、カリンボーが生きている文化であることを感じるだろう。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신앙의 행렬

世界的に名高い信仰の行列

COP30을 계기로 국제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벨렝은 사실 늘 수백만 명의 사람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매년 10월 열리는 시리우 지 나자레에는 약 250만 명이 모여드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 행사 중 하나입니다.

COP30 をきっかけに国際的な注目を集めているベレンだが、実はこの街は毎年数百万もの人々が訪れる都市である。毎年 10 月に行われるシーリオ・ジ・ナザレー Círio de Nazaré におよそ 250 万人が集う、世界最大の宗教行事と言われている。

브라질 국기 속 따로 빛나는 별

ブラジル国旗に輝く一つの星

브라질 국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질서와 진보'가 적힌 띠 위쪽에 홀로 Ordem e Progresso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파라주를 상징하는 별입니다. 브라질의 26개 주와 1개 연방구를 뜻하는 27개의 별 중, 유일하게 따로 떨어져 빛나는 별. 아마존의 관문이자 COP30의 무대가 되는 이 땅의 특별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ブラジル国旗をよく見ると、「秩序と進歩」Ordem e Progresso の帯の上に、離れて輝く星がある。これはパラー州を象徴しており、ブラジルの 26州と1連邦区を表す27の星の中で、唯一離れて輝いている。アマゾンの入り口でありCOP30 の舞台となるこの地が特別であることがわかる。

적도의 기후, 벨렝의 무더위

赤道気候の、ベレンの猛暑

적도에 가까운 도시답게 벨렝에선 고온다습이 일상입니다. 평균 기온은 24°C에서 32°C 사이. 그러니 가벼운 옷과 물병, 그리고 흐르는 땀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赤道に近い街、ベレンでは高温多湿である。平均気温は 24°C から 32°C であるため、薄手の服や飲料水の準備をし、多量の汗をかくことを覚悟しよう。

원주민의 땅에 자리한 400년 고도

先住民の土地に築かれた400年の都市

벨렝은 4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그 뿌리는 원주민 공동체에 있습니다. 뚜피남바 Tupinambá 등 원주민 공동체가 살던 이 땅은 본래 '마이리' Mairi라 불렸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던 터전이지요. 오늘날에도 벨렝 곳곳에는 원주민의 존재가 살아 있습니다. 언어, 의례, 삶의 방식이 도시며 시골에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음식과 음악, 생활 속에서 그 흔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ベレンは 400 年以上の歴史を誇るが、その起源は先住民にある。トゥピナンバ Tupinambá などの先住民共同体が暮らしていたこの土地は、「マイリ」Mairi と呼ばれていた。植民者が来るはるか前から人々が集まって暮らしていた場所である。今日でもベレンのあちこちに先住民の存在を感じることができる。言語や儀礼、生活様式は、都会や農村に未だ残っており、食文化や音楽、日常生活の中にもそれらの痕跡を見ることができる。

Photo © "carimbó" by Jesús Carmelino. CC BY-NC 2.0

에구아라는 말

「エグア」という言葉

파라에서 가장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에구아'입니다. 브라질 다른 지역에서는 '암말'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감탄사처럼 쓰입니다. 놀람, 기쁨, 좌절... 억양과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이곳에 머물면서 수도 없이 듣게 될 테니 놀라지 마세요.

パラーで最もよく耳にする言葉は「エグア」ÉGUA。ブラジル他地域では「雌馬」を意味するが、ここでは感嘆の言葉として使われる。驚き、喜び、落胆... イントネーションや文脈によって意味が変わる。ここに滞在している間、何度も耳にするだろう。

라틴 아메리카 최대의 야외 시장 베르우뻬주

ラテンアメリカ最大の青空市場、ヴェロ・ペーゾ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르우뻬주는 아마존의 맛과 향, 음악과 이야기로 가득한 감각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전통 음식과 약초,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시장 구석구석에는 벨렝 사람들의 삶이 새겨져 있습니다.

文化遺産にも指定されているヴェロ・ペーゾ Ver-o-Peso は、アマゾンの味や香り、音楽や物語を肌で感じることができる土地だ。伝統料理や薬草、お土産も豊富で、市場の隅々にベレン人の暮らしが刻まれている。

11

까바나젱 혁명

カバナジェン革命

Photo © Ian Dooley

벨렝은 브라질 역사상 최대 민중 혁명 중 하나인 까바나젱의 무대였습니다. 노예로 끌려온 아프리카인, 원주민 Cabanagem, 주민 공동체가 주축이 되어 도시를 장악했고, 심지어 당시 주지사가 총독궁 앞에서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ベレンはブラジル史上最大級の民衆革命、カバナジェン Cabanagem の舞台であった。奴隷として連れてこられたアフリカ系の人々、先住民、地域共同体が中心となって都市を掌握し、当時の州知事が総督宮殿前で殺害される事件も起きた。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

島々からなる都市

벨렝은 '강 위의 제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벨렝을 이루는 39개 섬 면적이 행정구역상 벨렝 전체 면적의 60퍼센트를 넘죠. 강섬과 바다 섬이 함께 공존하는데, 그중에는 꼼부 Combu, 꼬띠쥬바 Cotijuba, 모스께이루 Mosqueiro, 까라따떼우아 Caratateua 같은 잘 알려진 섬들도 있지요.

ベレンは「川のほとりの街」ではなく「川の上の群島」と言ってもよい。ベレンをなす 39 の島々は、市域全体の 60% 以上を占めている。川の中の島と海の島が共存し、その中にはコンブ Combu、コティジュバ Cotijuba、モスケイロ Mosqueiro、カラタテウア Caratateua といった、よく知られた島もある。

COP30 맛 아이스크림

COP30味のアイスクリーム

벨렝을 대표하는 아이스크림 가게 까이루는 늘 독창적인 맛으로 유명합니다. 이번에는 COP30을 맞아 특별한 조합을 만들었다고 해요. 피스타치오, 브라질너트, 꾸푸아수 잼이 어우러진 'COP30 맛' 아이스크림입니다.

ベレンを代表するアイスクリーム店 Sorveteria Cairu カイルは、いつも独創的なフレーバーで知られている。今回 COP30 を開催するにあたり、特別なフレーバーの組み合わせを創作。ピスタチオ、ブラジルナッツ、クプアスのジャムが合わさった「COP30 味」だ。

벨렝 지하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뱀

ベレンの地下に眠る巨大な蛇

벨렝 사람들은 도시의 땅속에 거대한 뱀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뱀의 이름은 보이우나. 머리는 세 대성당에 있고, 몸통은 나자레 성당까지 뻗어 있다고 하지요. 이 뱀이 깨어나면 물이 도시를 삼켜 벨렝은 홍수에 잠긴다고 전해집니다. 원주민 신화와 시리우 지 나자레가 얽힌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축제 행렬에서 사용되는 밧줄이 바로 이 보이우나를 계속 잠들게 하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ベレンの人々は、都市の地下に巨大な蛇の霊が眠っていると信じている。その名はボイウナ。頭はセー大聖堂 Sé Cathedral、胴体はナザレ聖堂 Basílica de Nazaré まで伸びているという。この蛇が目覚めると、ベレンは洪水に呑み込まれて沈んでしまうと伝えられている。先住民の神話とナザレ祭 Círio de Nazaré が結びついた物語で、人々は祭りの行列で使われるロープに、このボイウナを眠らせ続ける力が宿ると信じている。

벨렝 트리비아

ベレン11の物語

Belém TRIVIA

알면 더 잘 볼 수 있고, 잘 보면 더 좋아하게 되는 법.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벨렝에 관한 열한 가지 사실.
知れば景色が違って見え、よく見ればもっと好きになる。
知れば知るほどに興味が湧いてくる、ベレンをめぐる11の物語。

생존과 저항의 브라질 포르투갈어 12 生存と抵抗のブラジルポルトガル語

Brazilian Portuguese for Survival and Resistance

TOUR GUIDE

사진 © Afonso Castro

BRUNO THOMAZI ZANETTE
브루누 토마지 자네치 ♥
ブルーノ・トマジ・ザネッチ

기후정의 활동가. 브라질의 ‘미래를 위한 금요일’인 에코 벨루 끌리마(Eco Pelo Clima)에서 조직가로, 브라질 청년 기후변화 콘퍼런스(LCOY Brazil)에서 대표와 코디네이터로 활동했습니다. 気候正義の活動家。ブラジル版「未来のための金曜日」であるエコ・ペロ・クリマ (Eco Pelo Clima) のオーガナイザー、ブラジル若者気候変動会議 (LCOY Brazil) の代表とコーディネーターを務めてきました。

브라질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는 다른 나라의 포르투갈어와는 조금 다릅니다. 유럽, 원주민, 아프리카 문화가 오랜 시간 뒤섞이고 충돌하며 만들어졌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섞임’이라기보다, 지워지게 될 역사를 거부하며 이어져온 언어의 투쟁이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브라질 사상가 렐리아 곤잘레스는 이를 ‘쁘레뚜게스(Pretoguês)’라고 불렀습니다. ‘쁘레뚜(preto, 흑인)’와 ‘뽀르뚜게스(Português, 포르투갈어)’를 합친 말이지요. 그는 이 언어가 살아 있는 언어라고 했습니다. 리듬과 억양, 어휘 속에 아프리카의 흔적이 여전히 숨 쉬고 있다는 뜻입니다.

Lélia Gonzale

ブラジルで話されているポルトガル語は、他の国のポルトガル語とは異なる。ヨーロッパ、先住民、アフリカの文化が長い時間をかけて混ざり合い、時に衝突しながら形成されてきた。これはただの「融合」ではなく、消されようとした歴史に抗い、受け継がれてきた言語の闘いであった。アフリカ系のブラジルの思想家レリア・ゴンサレスはこれを「プレトゲス (Pretoguês)」と呼んだ。「プレト (preto、黒人)」と「ポルトゲス (Português、ポルトガル語)」を合わせた言葉で、彼女はこの言語を「生きている言語」と言った。それはリズムやイントネーション、語彙の中にアフリカの痕跡が今も息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

Lélia Gonzalez

Oi! Tudo bem?
오이! 뚜두 벵?
オイ! トゥドゥ ベン?

브라질 어디서든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인사예요. 간단하지만 예의를 차린 표현입니다. 공식적, 비공식적 자리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ブラジルのいたるところで耳にするあいさつ。シンプルで丁寧な表現は、フォーマルでもカジュアルでも使える。

Obrigado | Obrigada
오브리가두 | 오브리가다
オブリガド | オブリガダ

고마움을 전하는 말입니다. 남성이면 ‘오브리가두’, 여성이면 ‘오브리가다’.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은 언제나 통합니다.
感謝の気持ちを伝える言葉。男性はオブリガド、女性はオブリガダ。発音が完璧でなくてもありがとうの気持ちは必ず伝わる。

Onde fica ___?
옹지 피까
オンジ フィカ

“OO는 어디에 있나요?”를 묻는 표현이에요. 호텔(o hotel 우 오떼우), 화장실(o banheiro 우 방녜이루), 맛집까지, 궁금한 곳을 빈칸에 끼워 넣어 쓰면 됩니다.
「OOはどこですか？」をたずねる表現。ホテル (o hotel: ウ・オテウ)、トイレ (o banheiro: ウ・バンネイル)、あるいはグルメ店など、OOの中を入れ替えて使用できる。

Não falo português
나웅 팔루 뽀르뚜게스
ナォン ファロ ポルトゲス

“포르투갈어를 못해요.” 솔직하고 유용한 표현이지요.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다가오고, 몸짓과 웃음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할 겁니다.
「ポルトガル語は話せません」。とても正直で便利な表現。こう伝えると人々は親切に接してくれて、身ぶりや笑顔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とろうとしてくれる。

Quero pedir, por favor
께루 뻬질 뽈 파볼
ケロ ペジール ポル ファヴォール

식당이나 카페에서 주문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걸로 부탁드려요”라는 뉘앙스로,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レストランやカフェで注文するときに使う。「これください」というニュアンスで、丁寧かつ柔らかい。

13

Quanto custa?
꽌뚜 꾸스따
クアント クスタ

시장이나 가게, 혹은 택시에서 자주 쓰게 될 표현입니다. “이거 얼마예요?”라는 뜻으로, 여행할 때 기본 생존 문장이지요.
「これいくらですか？」という、市場や店、タクシーなどで使える、旅での基本フレーズ。

Greve Global Pelo Clima
그레비 글로바우 뻴루 끌리마
グレヴィ グロバウ ペロ クリマ

‘글로벌 기후파업’이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위한 금요일(Fridays for Future)이 주도하는 전 세계 청소년 기후행동이 벌이는 행진입니다. 벨렝에서도 COP 기간인 11월 14일에 행진이 있을 거예요.
「グローバル気候ストライキ」という意味。未来のための金曜日 (Fridays for Future) が主導する、全世界の青少年気候行動によるマーチのこと。ベレンでも COP 開催中の 11 月 14 日に行われる予定。

Transição Justa
뜨란지싸웅 쥬스따
トランジサォン ジュスタ

Agora!
아거라
アゴラ

“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을!” 이 구호에는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취약한 공동체가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今すぐ公正な移行を！」。化石燃料から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移行する過程で、労働者や弱い立場にあるコミュニティが取り残されないことを求める声。

Respeitem os povos indígenas!
헤스뻬이뗑 우스 뽀부스 잉지제나스
ヘスペイテン オス ポヴォス インジジェナス

“원주민을 존중하라!” 아마존의 맥락에서 더욱 강력하게 울려 퍼지는 말입니다. 행진 중에도, 회의장 앞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先住民を尊重せよ！」。アマゾンという文脈で力強く響く言葉。マーチでも会議会場の前でも頻繁に耳にするだろう。

Proteja nossos Rios!
쁘로떼쟈 너쑤스 히우스
プロテジャ ノッソス ヒウス

“우리 강을 지켜라!” 댐 건설과 오염, 강에 대한 착취에 맞서는 구호입니다. 특히 아마존에서 강은 곧 생명 줄이기에,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닌 생존의 외침입니다.
「私たちの川を守れ！」。ダム建設や汚染、河川資源の収奪に対抗する叫び。アマゾンでは川が命そのものなので、比喩ではなく生存の叫び。

Quem não pode com a Formiga não assanha o Formigueiro!
껭 나웅 뻐지 꽁 아 포르미가 나웅 아싸뉭냐 우 포르미게이루
ケン ナォン ポージ コン ア フォルミガ ナォン アサーニャ オ フォルミゲイロ

“개미 하나 못 당하면 개미집을 건드리지 마라!” 원주민들이 자주 쓰는 구호입니다. 작은 존재를 얕잡아봤다간, 집단 전체의 힘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경고이지요.
「アリ一匹に勝てないなら、蟻塚 (ありづか) を刺激するな！」。ブラジル先住民がよく使うスローガン。小さな存在を軽んずると、集団になったときの力を思い知ることになるという警告。

Parem de destruir a Amazônia!
빠렝 지 데스트루일 아 아마조니아
パレン ジ デストルイール ア アマゾニア

“아마존 파괴를 멈춰라!” 언론 행동이든 거리 시위든, 가장 직접적이고 힘 있는 요구입니다.
「アマゾンの破壊をやめろ！」。メディアでのアクションやストリートデモにおいて最も直接的で力強い要求。

O futuro é ancestral
우 푸뚜루 에 앙세스뜨라우
オ フトゥーロ エ アンサストラウ

“미래는 조상에게서 온다.” 기후 해법은 원주민과 조상들의 지혜 속에 있다는,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메시지입니다.
「未来は祖先から来る」。気候問題の解決方法は先住民と祖先の知恵にあるという、短くも深いメッセージ。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BRZIL AMAZON ATLAS PART 01

브라질 아마존 아틀라스 ブラジル アマゾン アトラス

photo ⓒ NASA

브라질 아마존

最新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무엇이 아마존을 위태롭게 만들어왔을까?
브라질을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인리히 뵐 재단이 펴낸 「브라질 아마존
아틀라스」에서 아마존 현황을 다룬 대목을 발췌해 일러스트로 표현했다. 더불어 기후,
COP30과 관련된 필자들의 칼럼도 함께 소개한다.

ブラジル・アマゾンでは何が起きたのか？何がアマゾンを脅かしてきたのか？ブラジルを見る目を変えるため、ハインリヒ・ベル財団が刊行した『ブラジル・アマゾン・アトラス』から、ラムも紹介する。さらに気候やCOP30に関する寄稿コ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photo © 아리마 준

글쓴이
아리마 준

執筆
有馬 純

17

아리마 준
동경대학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2000년부터 올해까지 COP에 20번째 참가하고 있다. 그동안 교섭관으로서 두 차례에 걸쳐 교섭에 관여했으며, 특히 2008~2011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석 교섭관이었다. 이 글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책과 향후 과제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有馬 純
筆者が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締約国会議(COP)に初めて参加したのは2000年のCOP6(ハーグ)であった。以来、COPとの関わりは続き、本年11月のCOP30は20回目の参加となる。その間、交渉官として二度にわたり交渉に関与し、特に2008年~2011年には経済産業省の首席交渉官でもあった。本稿は筆者の経験を踏まえ、温暖化防止の国際枠組みの歩みと今後の課題について私見を綴ったものである。

기후 협상의 회고와 전망
地球温暖化交渉の回顧と展望

교토의정서에서 파리협정으로

1992년 온난화 방지의 첫 국제적 대응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지만, 부속서1국가(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안정화한다는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였다. 국제 사회는 더 강력한 기후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997년에 체결된 것이 교토의정서였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개발도상국에는 의무를 일절 부과하지 않는 체계였다.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기후변화협약의 원칙에 기반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세계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는 실효성이 결여된 합의였던 것이다. 게다가 교토의정서에 의해 부과된 선진국의 감축 목표, 즉 제1공약 기간(2008~2012) 동안 1990년 대비 평균 배출량을 일본은 6퍼센트, 미국은 7퍼센트, 유럽연합(EU)은 8퍼센트 감축한다는 목표는 걸보기와 다르게 EU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 영국의 석탄에서 천연가스로의 이행, 동서독의 통일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무관한 요인에 의해, EU의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체결 시에 이미 1990년 대비 8퍼센트의 감축 목표를 달성한 상태였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미국은 부시 정부 시절 교토의정서를 이탈해버렸다. 한편, 이미 철저히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오던 일본에 6퍼센트 감축은 매우 어려운 목표였고, 이를 달성하려면 1조 엔이 넘는 해외 크레딧을 조달해야 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패배이기도 했던바, 2000년 처음으로 기후 협상에 참여했던 나는 교토의정서의 불합리함을 통감했다.

기후 협상은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 뿌리 깊은 대립의 역사다. 내가 수석협상관으로 재차 협상의 최전선에 임했던 2008~2011년에는 중국,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협상관들이 '선진국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토의정서에 의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를 부담하며, 우리 개도국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감축 노력에 머물러야 한다'며 이분법적인 주장을 펼쳤다. 2000년 이후 중국을 필두로 신흥국의 탄소 배출 증가 추세가 현저해진 가운데, 선진국에만 의무를 지우고 개발도상국을 구속하지 않는 교토의정서의 체계는 기후변화 방지에 있어 유의미한 구실을 하지 못함이 점점 분명해졌다.

京都議定書からパリ協定へ

1992 年に温暖化防止の初の国際枠組みとして気候変動枠組み条約が締結されるが、附属書 I 国 (先進国) の温室効果ガス排出量を 2000 年までに 1990 年レベルで安定化させるという努力目標は達成できそうになく、より強力な枠組みが必要ということで 1997 年に締結されたのが京都議定書であった。

しかし京都議定書は先進国のみが削減義務を負い、途上国は一切の義務を負わない枠組みであった。「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という気候変動枠組み条約の原則を踏まえたものとはいえ、グローバルな問題である地球温暖化問題に対処する枠組みとしては著しく実効性を欠くものであった。しかも京都議定書の下で先進国が達成義務を負った削減目標、すなわち第 1 約束期間 (2008~2012) の平均排出量を 90 年比で日本は 6% 削減、米国は 7% 削減、欧州連合 (EU) は 8% 削減という取る目標は数字上の見掛けとは裏腹に EU にとって一方的に有利なものであった。英国における石炭から天然ガスへの転換、東西ドイツの統合等、温室効果ガス削減努力とは無関係の要因により、EU の排出量は京都議定書締結時に既に 8% 削減を達成していた。最大の排出国である米国はブッシュ政権の下で京都議定書から離脱してしまった。他方、既に徹底的な省エネを進めてきた日本にとって6% 削減は国内対策だけで達成するのは非常に困難であり、1 兆円を超える海外クレジットを調達せねばならなかった。まさしく日本の外交的敗北であり、2000 年に初めて温暖化交渉に参加した筆者は京都議定書の不合理を痛感した。

温暖化交渉は先進国対途上国の根深い対立の歴史である。筆者が首席交渉官として再び交渉の最前線に戻った 2008~2011 年頃、中国、インド等、途上国の交渉官は「先進国はこれまで通り、京都議定書の下で法的拘束力を有する数値目標を負い、自分たち途上国はあくまで自主的な行動にとどめるべきだ」という二分法の主張を行っていた。2000 年以降、中国をはじめとする新興国の排出増大は著しく、先進国のみが義務を負い、途上国を野放しにする京都議定書のような枠組みでは温暖化防止に全く用をなさないことは愈々明らかになっていた。「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を踏まえ、先進国が排出量の削減、途上国が対国内総生産 (GDP) 比排出量の低下等、目標内容を差異化することは当然としても、先進国も途上国も共通の枠組みの下で削減努力をすべきであるというのが日本を含む先進国の主張であった。

기후 협상은 선진국 대 개발도상국 간
뿌리 깊은 대립의 역사다.

温暖化交渉は先進国対途上国の根深い対立の歴史である。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입각해, 선진국의 배출량 감축, 개도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배출량 감축 등 목표와 내용을 차등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공통의 틀 안에서 감축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주장이었다.

나는 수석협상관의 일원으로서 '일본은 어떠한 상황, 조건하에서도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COP16(칸쿤)에서 표명했다. 당시 COP에서는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 설정에 관한 협상과 기후변화협약하에서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틀에 관한 협상이 병행되고 있었다. 일본은 전자인 교토의정서 제2공약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미국,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자율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한 후 검토받는다는 내용의 '칸쿤합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칸쿤합의와 교토의정서의 큰 차이는 ①모든 국가가 목표를 설정할 것, ②목표는 각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 ③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처벌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 등의 방침에 있었다. 이러한 상향식 사고방식은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도 칸쿤합의의 '서약과 검토(pledge and review)' 방식을 준용하고 있다. 교토의정서에서 힘든 경험을 했던 나는 '드디어 모두가 참여하는 형태의 틀이 갖춰졌다'며 깊은 감회에 젖었던 기억이 있다.

환경근본주의의 대두와 파리협정의 변질

파리협정의 상향식 '서약과 검토'는 모든 국가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유익한 것이었지만, 환경파 사람들은 1.5~2°C 이내라는 하향식 온도 목표를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8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1.5°C 특별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국제연합(UN), EU, 환경단체 등은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에 전념하며, 이를 위해 2030년 목표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리협정은 하향식과 상향식의 절묘한 균형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최근 COP의 논의는 하향식 1.5°C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50년 넷제로(Net Zero)가 사실상 기본 사항이 되었고, 각국의 사정에 기반해 목표를 설정한다는 상향식 접근은 뒤로 밀려나버렸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의 최종 국면에서 크게 쟁점이 되었던 것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 문제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석탄화력발전은 환경단체의 관점에서 적대시되어왔고, 의장국인 영국은 글래스고 기후 협정의 최종안에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인도가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마지막에 가서 '단계적 폐지'가 '단계적 감축'으로 교체되었다. 유럽 국가,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될 위험에 처한 도서 국가들은 파리협정 이후 기후변화 대응의 모멘텀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했다.

筆者は首席交渉官の一人として「日本はいかなる状況、条件のもとでも京都議定書第二約束期間には参加しない」と COP16(カンクン) で表明した。当時、COP においては京都議定書第 2 約束期間の設定に関する交渉と、気候変動枠組み条約の下で全ての国が参加する枠組みに関する交渉が並行して行われていた。日本は前者の京都議定書第二約束期間には参加しなかったが、米国、中国を含むすべての国が自主目標を設定し、その進捗状況を報告し、レビューを受けるという「カンクン合意」に参加することとなった。カンクン合意の京都議定書との大きな違いは、①全ての国が目標設定をすること、②目標は各国が自主的に設定し、交渉対象にはならないこと、③目標達成ができなくても罰則的な規定が適用されないこと、である。このボトムアップの考え方が米国、中国の参加を可能にしたのであり、2015 年に成立したパリ協定もカンクン合意の「プレッジ & レビュー (pledge and review)」方式を踏襲している。京都議定書で苦い経験をしてきた筆者は「ようやく全員参加型の枠組みができた」と深い感慨を覚えたものである。

環境原理主義の台頭とパリ協定の変質

パリ協定のボトムアップの「プレッジ & レビュー」はすべての国の参加を得るうえで非常に有益なものであったが、環境派の人々は 1.5~2 °C 以内というトップダウンの温度目標をすべてに優先すべきだと主張してきた。特に 2018 年に気候変動に関する政府間パネル (IPCC) の「1.5 °C 特別報告書」が発表されて以降、国連 (UN)、EU、環境 NGO 等は「各国は 2050 年ネットゼロエミッションにコミットし、そのために 2030 年の現行目標を大幅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の主張が高まった。

パリ協定はトップダウンとボトムアップの絶妙なバランスの上に成立したものであるが、最近の COP の議論は、トップダウンの 1.5 °C 目標とそのための 2050 年ネットゼロ (Net Zero) が事実上の基本となり、各国の実情を踏まえた目標設定というボトムアップの側面が隅に追いやられてしまっている。

2021 年 11 月、英国のグラスゴーで開催された COP26 の最終局面で大きな争点になったのが石炭火力のフェーズアウト (段階的廃止) 問題であった。CO2 排出量の多い石炭火力は環境団体から目の敵にされており、議長国英国はグラスゴー気候協定の最終案に石炭火力のフェーズアウトを盛り込んだ。これにはインドが強く反対し、土壇場で「フェーズアウト (段階的廃止)」は「フェーズダウン (段階的削減)」に差し替えられることとなったが、欧州諸国や温暖化によって国が水没するリスクのある島嶼国はこのトーンダウンに強い不満を抱くこととなった。2050 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絶対視すれば、算術計算上、石炭火力の新設ゼロはもとより、稼働中の石炭火力、更には化石燃料全体のフェーズアウトに早急に進めねばならないこととなる。こうした議論の最大の問題点はそれが途上国のエネルギー事情を全く顧慮していないことである。トップダウンの温度目標を最優先する先進国と自国の事情を理由にこれに反発する途上国の構図はそれ以降もずっと続いている。

이러한 양보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2050년 탄소중립을 절대시한다면, 산술적으로 볼 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나아가 모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이런 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톱다운 방식의 온도 목표를 최우선시하는 선진국, 자국의 사정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는 개발도상국의 구도는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과 새로운 기후재원 목표

최근의 기후 협상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건 2023년 COP28(두바이)에서 있었던 전 지구적 이행 점검(Global Stocktake, GST)이다. GST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대응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는 틀로, 향후 목표 설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쟁점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를 합의문에 포함할지 여부였다. 유럽 각국, 도서국가, 비영리단체(NGO) 등은 1.5℃ 목표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 퇴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석유 산유국과 러시아 등은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탄소배출 감축일 뿐 특정 에너지원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적으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이행(transition)'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GST에는 1.5℃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치나 야심 찬 에너지 전환 목표 등도 포함되었으나, 개발도상국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 합의문에는 2050년 전 지구적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4~5조 달러의 재생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는 수치도 담겼다. 선진국은 매번 COP에서 더 높은 목표를 주장하지만, 이는 개발도상국에서 거액의 청구서가 되어 선진국으로 되돌아온다.

그 '청구서'가 논의된 것이 2024년의 COP29(바쿠)였다. COP29의 최대 초점은 2025년 이후 개발도상국 지원을 위한 새로운 재원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이 연간 최소 1.3조 달러를 지원할 것, 1.3조 달러는 양허성 공적 자금일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진국은 재원의 출처를 선진국뿐 아니라 부담 능력이 있는 개발도상국(중국과 산유국 등)으로 확대할 것,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것 등을 주장했고, 가장 중요한 재원 조성 목표에 대해서는 2000억 달러를 제시해 개발도상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역으로 선진국은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 합의와 패키지로 COP28의 GST에 포함되었던 화석연료에서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이행, 야심 찬 목표의 강화 등 후속 조치, 완화행동의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러한 주장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と新資金援助目標

最近の温暖化交渉で大きな節目となったのが2023年のCOP28(ドバイ)で行われた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GST, Global Stocktake)である。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とはパリ協定の目標達成に向けた国際的な取り組みの進捗状況を評価する枠組みであり、今後の目標設定にも大きな影響を有する。

大きな争点となったのが化石燃料のフェーズアウト(段階的廃止)を合意文書に盛り込むか否かである。欧米諸国、島嶼国、非政府組織(NGO)等は1.5℃目標を達成するためには化石燃料フェーズアウトが不可欠であると主張したのに対し、産油国、ロシア等は自分たちが目指すべきは温室効果ガス削減であり、特定のエネルギー源を狙い撃ちにするべきではないと主張した。最終的には化石燃料の「フェーズアウト」ではなく、「移行(transition)」という玉虫色の表現で決着した。

2025年までに世界全体のピークアウト、2035年までに世界の温室効果ガスを60%削減といった数値は、IPCC第6次評価報告書(AR6)に盛り込まれているが、あくまで「認識」の対象でしかなく、これをもって中国とインドが2035年までに60%削減という整合的な削減目標を設定するとは考えにくい。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では再エネ3倍、省エネ2倍等と並んで原子力、CCUS(Carbon dioxide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二酸化炭素の回収・利用・貯留)、移行燃料(天然ガス)の役割が明確に位置づけられた。原子力、CCUSがCOPの決定文書でポジティブに扱われたのは初めてである。原子力に対する国際的認知が進んだ背景にはウクライナ戦争等をはじめとする国際エネルギー情勢の不安定化もあるだろう。

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には1.5℃と整合的な排出削減数値や野心的なエネルギー転換目標が盛り込まれたが、それを途上国で実現するには巨額な資金が必要となる。合意文書には2050年までに全世界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を達成するためには年間4~5兆ドルのクリーンエネルギー投資が必要との数値も盛り込まれた。先進国は毎回のCOPでより高い目標への上方修正を主張しているが、それは途上国からの巨額な請求書となって自分に戻ってくる。

その「請求書」が議論されたのが2024年のCOP29(バクー)であった。COP29の最大の焦点は2025年以降の途上国支援のための新たな気候資金目標を決定することにあった。途上国は先進国が年間少なくとも1.3兆ドルを支払うこと、1.3兆ドルは譲許的な公的資金であること等を要求した。これに対して先進国は資金援助の出し手を先進国のみならず、能力のある途上国(中国、産油国等)にも広げること、民間資金を含む多様な資金源から調達すること等を主張し、肝心の気候資金目標については2000億ドルという数字を提示し、途上国の強い反発を受けた。逆に先進国は、新たな気候資金目標の合意とパッケージで、COP28のグローバルストックテイクに盛り込まれた化石燃料からの転換、野心レベルの強化等のフォローアップ等、緩

선진국으로부터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도 기대할 수 없다.

先進国からの気候変動対策資金が導入されなければ途上国のNDC目標の上方修正も期待できない。

결국 새로운 재원 목표는 3000억 달러로 결정되었지만, 인도 등 일부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런가 하면 여기에 선진국이 중시하던 완화행동 강화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COP29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양측에 강한 불만을 남긴 채 씁쓸한 결말을 맞았다. 더구나 3000억 달러라는 숫자의 실현 가능성도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자금 공여를 일절 하지 않겠다고 호언하는 와중에, 일본이나 EU가 미국의 몫을 대신 떠말을 수도 없다. 선진국으로부터 재원이 조성되지 않으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상향도 기대할 수 없다.

앞으로의 전망

이처럼 세계가 한마음으로 탈탄소화, 1.5℃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파리협정이 상향식 공조에 강제력도 없어 1.5℃ 목표 실현이 어렵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파리협정을 교토의정서처럼 목표 미달 시 벌칙을 부과하는 강제력 있는 제도로 개정한다 해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목표 달성이 법적 의무가 된다고 해도, 각국은 벌칙을 피하기 위해 확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목표를 내놓는 데 그칠 것이다. 그러니 구조가 불완전하더라도, 파리협정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다.

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로 인해 세계가 '탈(脱)탄소' 흐름으로 전환되었다'는 일부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연이은 IPCC 보고서들이 경고한 기후위기의 위험에는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각국이 직면한 과제는 온난화 방지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도 선진국과 신흥국·개도국 간 견해 차가 크다는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1.5℃ 목표 달성 속도로 탈탄소화가 진전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환상이다. 하지만 탈탄소화라는 과제 자체는 이미 거의 모든 국가의 정책 의제 속에 자리 잡았고, 꾸준히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념적 탈탄소론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전면 부정하는 '탈-탈탄소론'도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상식이다.

和行動の強化を強く主張した。しかし中国、インド、サウジ等はこれに強硬に反対した。

結局、新たな気候資金目標は3000億ドルで決着したが、インド等、いくつかの途上国は「この合意を受け入れられない」と強く反発した。他方、先進国が重視していた緩和行動の強化は全く盛り込まれなかった。このようにCOP29は先進国、途上国双方に強い不満を残す苦い結末となった。しかも3000億ドルという数字の実現可能性も決して楽観できない。トランプ政権の米国は資金拠出を一切しないと広言しているし、日本やEUが米国の肩代わりもできない。先進国からの気候資金が動員されなければ途上国の温室効果ガス削減目標(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の上方修正も期待できない。

今後の展望

このように世界は脱炭素化、1.5℃目標に向かって一致団結して進んでいるとは言い難い状況にある。パリ協定のボトムアップの枠組みと強制力のなさゆえに1.5℃目標の実現が困難になっているとの見方がある。しかしパリ協定を目標未達に罰則がかかる京都議定書のような強制力のある枠組みに改正しようしても、米国、中国等の主要国が支持するとは思えない仮に目標達成が法的義務になったとしても、各国は罰則を避けるため、確実に達成できる低い基準で上方修正した目標しか出さなくなるだろう。仕組みとして不完全ではあっても、パリ協定でやっていくしかない。

筆者は「トランプ政権のパリ協定離脱によって脱・脱炭素に世界の流れが変わった」という一部の見方には賛同しない。累次のIPCC報告書に示された温暖化のリスクに対する警鐘には真摯に向き合うべきだ。しかし各国が直面する課題は温暖化防止だけではなく、17の持続可能な開発目標(SDGs)に対する優先順位の置き方も先進国と新興国・途上国で大きく異なっている事実にも向き合うべきだ。

1.5℃目標を達成するほどのスピードで脱炭素が進むと考えるのは幻想だが、脱炭素という課題はほぼすべての国の政策課題に組み込まれ、着実にその方向には向かうだろう。観念的な脱炭素論でもなく、これまでの積み重ねを全否定するような脱・脱炭素論でもなく、我々に求められるのはコモンセンスである。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1.

미국 米国

기후위기에 있어 가장 큰 역사적 책임을 지닌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COP에 불참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는 2026년 1월에야 발효되지만, 미국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자취를 감췄다.

이러한 미국의 결정은 소극적 결석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적극적 선언으로 읽힌다. 동시에 그 빈자리는 다른 목소리를 전면으로 끌어올린다. 바로, 국제법과 기후정의의 새로운 기준이다. 미국이 빠진 공백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메울 것인가? 이제 벨렝의 회의장 위로, 지금껏 해결되지 못했던 책임과 배상에 관한 물음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気候危機に対して最大の歴史的責任を負う米国が、史上初めて COP を欠席することとなった。米トランプ政権によるパリ協定離脱は来年 1 月に発効されるが、米国はすでに交渉のテーブルから外れた。

米国の決定は、消極的な欠席ではなく、世界が直面する危機に対し「責任を果たさない」という積極的な宣言と解釈ができる。同時に、その不在は別の声を前面に押し出すことになる。それは国際法と気候正義の新たな基準である。米国の不在を、どの原則に基づいて、誰が補うのか。ベレンの会場には今、先送りされてきた責任と補償の課題が本格的に噴出している。

2.

26
국제법 国際法

미국이 빠진 빈자리를 채우듯, 2025년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모든 국가는 파리협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기후를 보호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COP30의 협상 지형에 직접적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각국은 2035년을 기점으로 하는 더욱 야심 찬 NDC를 제출해야 하고, 그 개별 목표의 총합은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근접해야 한다. 하지만 감축 목표의 격차는 여전히 좁히기 어려워 보이는 실정이다.

米国の不在を補うかのように、2025 年 7 月、国際司法裁判所 (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は歴史的な判決を下した。すべての国家は、パリ協定への加盟の是非にかかわらず、気候を保護する法的義務を負うものだ。

この判決は COP30 の交渉の構図に直接的な影響を与えている。各国は 2035 年を目標とする国別削減目標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において、より目標の高い NDC 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合計はパリ協定の 1.5°C 目標に近くなければならない。しかし削減目標のギャップは以前として埋まりそうにないのが現状である。

3.

글로벌 남반구
グローバル南半球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선진국들이 내야 할 것은 민간 투자가 아니라 공적 재정 투입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파리협정 제9조 1항(“선진국 당사자는 협약상의 자신의 기존 의무의 연속선상에서 완화 및 적응 모두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제공한다”)에 명시된, 명백한 조약상의 의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포괄적 담론 뒤에 숨어 이 의무를 회피해왔다.

글로벌 남반구가 원하는 것은 ‘얼마나’보다 ‘어떻게’에 대한 답이다. 결국 이 논쟁의 바탕에도 단 하나의 질문이 놓여 있다.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배상할 것인가? 글로벌 남반구는 그 책임을 글로벌 북반구에 되묻고 있다.

グローバル・サウスの諸国は発言を強めている。先進国がすべき支援なのは民間投資ではなく、公的資金であるというのだ。実際にこれはパリ協定第 9 条 1 項 (「先進国締約国は、協定に基づく既存の義務の延長線上で、緩和と適応の双方に関して途上国締約国を支援するための資金を提供する」) に明記されている。これは条約上の義務である。しかし先進国は包括的な言葉の陰に隠れて、この義務を回避してきた。

グローバル・サウスが求めているのは「いくら」よりも「どのように」である。結局この論争の根底にあるのは、ただ一つの問いである。誰が責任を負い、誰が賠償するのか。グローバル・サウスはその責任をグローバル・ノースに問い返している。

4.

글로벌 북반구
グローバル北半球

COP29에서 채택된 탄소거래제도는 새로운 책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EU는 204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 탄소시장 인증제도의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내에서 직접 배출을 줄이기보다, 해외에서 이뤄진 감축분을 사들여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자국 내에서 탄소배출을 최대한 감축해야 할 당사자들이 그 부담을 다른 지역으로 전가하는 셈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을 통해 발생할 거래 수익이 ‘기후재정’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탄소거래는 책임을 공정하게 나누는 장치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회피할 우회로로 악용될 위험이 다분하다.

COP29 で採択された炭素取引制度は、新たな責任論争を巻き起こした。欧州連合 (EU) は 2040 年目標を達成するため、国際炭素市場の認証制度のガイドラインを従うことを表明した。これは自国で直接排出を削減するのではなく、海外で行われた削減分を買い取り、帳簿に記録する仕組みである。自国で最大限の炭素排出削減を行うべき当事者が、その負担を他地域に押し付けているだけだ。

さらに問題なのは、この過程で発生する取引収益が「気候資金」に化けてしまう危険性がある。つまり、炭素取引は責任を公正に分かち合う仕組みどころか、むしろ責任回避の迂回路として悪用される危険性が大きい。

5.

27
의장단 議長団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주제는 아무래도 새롭게 제출될 각국의 2035 NDC 수준과 감축 목표 간의 격차(ambition gap)다. UN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은 COP30 직전 종합 보고서를 발표해, 새로 제출된 각국의 NDC들이 다시금 1.5°C를 향한 목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고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열린 중간 협상에서 가장 큰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된 것은 정의로운 이행 작업 프로그램(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이다.

最大の関心は、各国が新たに提出する 2035 年の NDC の水準と、削減目標との間にある「アンビション・ギャップ (ambition gap)」である。UNFCCC 事務局は COP30 直前に総合報告書を公表し、新たな NDC が再び 1.5°C の基準に満たないであろうという見解を示した。一方、6 月にドイツ・ボンで開かれた中間交渉で最大の前進であったと評価されたのは、公正な移行作業計画 (JTWP, Just Transition Work Programme) であった。

COP30 は、削減目標の面における課題をを浮き彫りにし、適応と資金の質をめぐる論争を続けながら、公正な移行に向けた慎重な楽観が交錯する場となりそうだ。

6.

시민사회 市民社会

COP30은 인권과 성평등 의제에 역풍이 거세게 불어오는 시기에 열린다. 무급 돌봄노동의 인정, 교차성과 젠더 다양성을 반영한 용어 사용은 일부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그럼에도 벨렝에서 새로운 젠더액션플랜(GAP, Gender Action Plan)이 채택된다면, 기후협상 테이블이 ‘환경’ 이상의 보편적 권리와 대표성을 다루는 공간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협상장 바깥, 벨렝 거리에서는 또 다른 무대가 열린다. 바로 민중 정상회의(Cúpula dos Povos)다. 그들의 구호는 명료하다. “지금 당장 기후정의(Justiça climática já)!”

COP30 は、人権やジェンダー平等の議題に強い逆風が吹く時期に開催される。無償ケア労働の承認、交差性やジェンダーの多様性を踏まえた表現の使用において、一部の政府から反発を受けている。それでも、ベレンで新たなジェンダー行動計画 (GAP, Gender Action Plan) が採択されれば、気候交渉が「環境」だけにとどまらない、普遍的な権利と代表性を扱う場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ことになるだろう。

そして交渉の場の外側である、ベレンの街頭ではもう一つの舞台が開かれる。それは市民社会による「民衆会議 (Cúpula dos Povos)」である。彼らのスローガンは明快だ。「Justiça climática já (今すぐ気候正義を)!」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 농업용 보는 3만 3942개이며, 이 중 5857개는 파손, 3826개는 폐기된 상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시설은 늘어나고, 도시화와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용도를 상실한 시설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강의 지류마다 숨어 있는 농업용 보에 대한 철거사업이 시범으로 추진된 적이 있지만, 더 큰 규모로 확산되진 못했다. 강 복원을 고민해온 전문가와 시민사회조차 4대강사업이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특히 주요 하천에서 녹조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환경운동 진영 전체가 4대강 복원에 절실하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정치적 요인도 있었다. 사실상 양당 체제인 한국 사회에서 보수 정당인 당시 새누리당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사업을 추진했고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나섰지만, 그러한 반대도 정쟁 수준에 머물렀을 뿐 대안적 비전은 부재했다. 새로운 세대가 풀씨부터 키워내야만 새로운 비전이 꽃필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져가고 있었다.

마을 하천에서 싹을 틔우는 작은 풀씨

2006년, 2016년 환경부가 펴냈던 「농업용 보 철거 시범사업 보고서」를 10년 만에 다시 꺼내 읽었다. 연구 책임을 맡았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곡릉2보가 철거 이후 수질이 가장 뚜렷하게 개선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 3~4등급 수준에서 1등급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4대강사업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작은 성과부터 만들어갈 동료를 찾고 싶다고 말이다. 경기도 성남에서 답장이 왔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탄천에서 이제는 쓰이지 않는 농업용 보를 철거해보고 싶다고 했다. 이후 5년간 시·환경부·의회를 설득해 세 개의 농업용 보를 철거했다. 시민 과학 연구와 전문가 협업으로 철거 후 환경 데이터를 수집·분석했고, 홍수 위험도 검토했다. 그 결과 홍수위는 1미터 낮아졌고,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왔으며, 수질은 처음으로 1등급을 기록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용도를 상실한 채 강을 가로막고 있는 저 많은 장벽을 하나씩 철거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업으로 일궈낸 성과를 고루 나누고, 이 과정에서 신뢰라는 사회적 역량을 쌓아봐야, 그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마을의 일부로서 강을 이해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과정을 더 깊이 마주해야 한다. 작은 보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마음이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테니까.

業用堰は 33,942 基、そのうち 5,857 基が破損し、3,826 基が廃止済みだ。

時間が経つにつれて老朽化した施設は増え、都市化や地域消滅が進み、使用用途を失う施設はさらに多くならざるを得ない。このような背景の元支流に点在する農業用堰の撤去が試験的に進められたが、広がることはなかった。河川の復元を考えてきた専門家や市民社会でさえ、四大河川事業という巨大な渦に取り込まれていたからである。また、主要な河川でアオコの被害が深刻化したために、環境運動に関わるあらゆる人々が四大河川の復元に取り組まなければならなくなった。

政治的な要因もあった。二大政党制の韓国社会において、保守政党である当時のセヌリ党出身の李明博大統領が四大河川事業を推進し、民主党はこれに反対の姿勢を示したが、単なる政争にすぎず、代わりとなるビジョンは欠けていた。新しい世代が小さな種を育ててこそ、新しいビジョンが花を咲かせるということが、次第に明らかになっていった。

村の小川から始まる希望の種

2016年、2006年に環境部がまとめた農業用堰撤去の試験事業報告書を、10年ぶりに再び読み返した。韓国建設技術研究院の分析によれば、曲陵 2 堰の撤去後、水質は最も顕著に改善され、生化学的酸素要求量が 3~4 等級から 1 等級に回復し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私は全国の活動家たちにメールを送った。四大河川事業の過ちを正すために、小さな成果を共に積み上げていける仲間を探したい、と書いたのだ。京畿道城南から返事が届いた。市街地を流れる炭川で、もう使われていない農業用堰を撤去したいという申し出だった。その後 5 年間にわたり、城南市・環境部・市議会を説得し、3 基の農業用堰を撤去した。市民科学と専門家の協力でデータを収集・分析し、洪水リスクも検討した。その結果、洪水位は 1 メートル下がり、絶滅危惧種のイカルチドリが戻り、水質も初めて 1 等級を記録するなど、変化は劇的であった。

私たちにはさらに多くの挑戦と成功、そして失敗が必要だ。役割を失ったまま川をせき止めている障壁を一つずつ取り除き、その記録を残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様々な利害関係者の協力で得られた成果を分かち合い、その中で信頼という社会的な資本を積み重ねてこそ、次の段階に進む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地域の一部として河川を理解し、少しずつ変化を生み出す過程と深く向き合う必要がある。小さなダムから始まったこの思いが、大きな変化の兆しとなるだろう。

(편집자 주) 브라질 아마존의 벨루몬치 댐(Belo Monte Dam)은 댐 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다. 약 5조 원을 투입해 건설된 댐은 싱구강(Rio Xingu) 볼타그란지(Volta Grande) 구간의 유량을 80퍼센트 감소시켰으며, 130킬로미터의 물줄기가 이에 영향을 받았다.

(編集者注)ブラジル・アマゾンのベロモンテ・ダム(Belo Monte Dam) は、ダムの悪い影響を象徴する事例の一つである。建設には約 5 兆ウォンが投じられ、シングー川 (Xingu) ボルタグランデ (Volta Grande) 区間の流量は 80% 減少し、130km にわたる水路が影響を受けた。

artwork © Listen to the City @listentothecity

강의 땅을 강에게
Return the River's Land to the River

한국 낙동강 지류 내성천의 영주댐과 브라질 아마존강 지류 싱구강(Rio Xingu)의 벨루 몬치(Belo Monte) 댐은 비슷한 시기에 공사를 시작하여 완공되었습니다. 리스트디시티는 2019년부터 지용스님과 내성천 천구들을 결성하여 댐으로 인한 내성천의 변화를 관찰하며 생태를 기록하고 강습지의 중요성을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내성천에서 강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천구들을 통해 아마존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모래 강변으로 유명한 내성천에 댐을 짓는 과정에서 영주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물길을 막았습니다. 댐으로 막힌 내성천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수수나 곤충용수 등 이루런 동도로도 쓸 수 없게 되었으며, 멸종위기종인 원수마저와 먹황새가 강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브라질의 댐 사업도 비슷합니다. 브라질 정부는 싱구강에 벨루 몬치 댐을 건설했습니다. 2019년 11월 완공 후 생긴 저수지 면적은 668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이중 약 400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된 산림이었습니다.

숭수는 강의 심장 박동과 같아서 범람하지 않는 강은 죽은 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있는 강은 강이가 다양하고 나무와 수변이 저연스럽게 이어지며 많은 생명을 길러냅니다. 우리는 다시 강이 구불구불 흐를 수 있도록 브라질의 강과 생명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The Yeongju Dam on Naeseongcheon Stream, a tributary of the Nakdong River in South Korea, and the Belo Monte Dam on the Xingu River, a tributary of the Amazon River in Brazil, began construction and were completed during similar periods. Since 2009, Listen to the City has formed an alliance called and Friends of Naeseongcheon with Monk Jiyul to observe the changes caused by the dam on Naesongcheon Stream, studying and documenting the importance and ecology of river wetlands.We witnessed the process of the river dying. And we learned from our friends in Brazil that similar events were happening in the Amazon.

During the construction of the dam on Naesongcheon Stream, famous for its beautiful sandy river, the government cut down hundreds of thousands of trees and blocked the water flow. As a result, the Naesongcheon Stream, blocked by the dam, is deteriorating and has become a reservoir that cannot be used for any purpose, whether for drinking water or industrial water. Endangered species such as the Korean stumpy bullhead and Oriental stork have disappeared.

The Brazilian dam project is similar. The Brazilian government built the Belo Monte Dam on the Xingu River, a tributary of the Amazon River. Completed in November 2019, the reservoir covers an area of 668 square kilometers, of which approximately 400 square kilometers of forest were submerged.

Floods are like the heartbeat of a river; a river that does not flood is like a dead river. A living river has varied depths, with trees and riparian zones naturally connected, nurturing abundant life. We want rivers to meander and flood again. We send our solidarity and support to the rivers, wildlife, and residents of Brazil so that rivers can flow freely once more.

리스트투더시티: 박은선 글과 그림, 이민규 디자인
Listen to the City: written and illustrated by Park Eunseon and designed by Lee Mingyu

BRZIL AMAZON ATLAS PART 02

브 라 질 아 마 존 아 틀 라 스 ブラジルアマゾンアトラス

#지구

아마존을 새롭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마존을 보존하고 지켜온
사람들, 즉 도착민과
전통적 공동체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브라질
아마존 아틀라스』에서
발췌한 아마존 토착민과
공동체의 저항 활동들을
담은 일러스트 브라질과
기후위기, COP30 이슈를
다룬 칼럼을 함께 싣는다.

#地球

新たに理解するには、終わりなき脅威の中にも多様な関わりを通じた共生民と伝統的コミュニティの闘いを保ち続けてきた人々の歴史を知る必要がある。『ブラジル・アマゾン・アトラス』から抜粋した彼らの抵抗と運動を収めた文章とイラスト、そしてブラジルと気候危機、COP30をめぐるコラムを掲載する。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1 연대 連帯

올해 미국에서 제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트럼프는 기후변화를 전면 부정하고 미국 내 화석연료산업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이민을 악으로 규정하고, 배외주의를 부추기는 현상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성이 심화된 것도 그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각지에서 극우 세력이 성장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억압이 강화되고 있다. 다극화하는 세계에서,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은 한층 어려워졌다. 또한 기후위기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수준에 도달해버린 건 아닌가 하는 공포와 불안도 있다. 바로 이런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 끈끈한 시민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연대는 가능한 것임을 COP 현장의 각국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今年米国で第二次トランプ政権が発足し、トランプは依然として気候変動を否定し、国内の化石燃料産業を後押ししています。移民を悪と規定し排外主義を煽るといった現象はアメリカにとどまらず、欧州や日本でも起きている。コロナ禍やロシアのウクライナ侵攻などでさらに経済・政治的不安の増大も背景にはあるだろう。各地で極右勢力が成長し、市民社会に対する抑圧が強まっている。多極化する世界で、気候変動など地球規模の問題への各国の協力がより困難になっている。また、気候危機は取り返しのつかないレベルにまで到達してしまっ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恐怖や不安もある。しかし、この流れに対抗するためにこそ、市民同士が結託し、連帯は可能であるということを、COPの場で各国のリーダーたちに示し、彼らもまたリーダーシップを発揮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광물자원 鉱物資源

광물자원의 개발은 환경과 사회, 지역 공동체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쳐왔으며, 특히 글로벌 남반구 개발 현장에서의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는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최근 에너지 전환을 위한 광물자원 수요가 커지면서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일본 정부 또한 중요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원의 다각화, 원자재 공급망 확보, 자원 외교 강화 등을 정책 방침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 개발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진정 '공정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국내와 해외, 육상과 해상을 막론하고 광물자원의 무제한 채굴에서 벗어나 수요를 줄이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야 한다. 광물자원이 선진국의 에너지 전환이나 자동차산업 등에 우선적으로 쓰이는 반면, 개발도상국에는 환경 부담과 부채만 남기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元々、鉱物資源開発は環境や社会、コミュニティへの影響が非常に大きく、特にグローバルサウスにおける開発地での環境破壊や人権侵害が問題となってきた。これに加え、エネルギー転換に起因する鉱物資源の需要が高まり、それに伴う負の影響も懸念される。日本政府も、重要鉱物の安定供給のため、供給源の多様化や鉱物資源のサプライチェーンの確保、資源外交の強化等を政策の方針としている。しかし、鉱物資源開発がもたらす負の影響についてはあまり議論がなされていない。真に「公正な」エネルギー移行のためには、国内外また転換問わず、鉱物資源の際限ない採掘から脱却し、可能な限り需要を削減することが大前提である。鉱物資源を先進国のエネルギー転換や自動車産業等が優先的に消費される一方で、途上国においては環境負荷と債務だけが残される構造に対する問題提起も必要であるだろう。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

1992년 리우에서 채택된 UN기후변화협약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내걸었다. 역사적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한 나라들은 그만큼 감축 책임이 클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지원할 의무도 진다는 원칙이다. 실제로 17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누적 배출량 중 4분의 1이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서 배출되었다. 일본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탄소배출국 중 하나다. 경제 대국인 선진국의 행동이 기후위기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나 COP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부정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 조성을 회피했으며, 개발도상국이 요구하는 '배상 책임'에도 반대해왔다. 일본 정부 관계자 등과 대화할 때에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입장이나 견해 차이로 인한 대립이 기후 대응 논의를 늦추고 있다는 식의 발언이 들리곤 한다. 그러나 기후부정의(不正義)의 뿌리에는 과거 식민지 시대의 구조로부터 이어져온 글로벌 남반구에서의 자원과 노동력 착취, 그리고 그것이 떠받쳐온 선진국의 소비와 풍요, 곧 경제식민주의적이고 불평등한 체제가 있다. 선진국은 경제 발전을 이루어 풍요로워져 기후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반면, 착취당해온 나라는 여전히 가난해서, 기후변화 대응은커녕 교육이나 사회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자금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가 채무 여건이 악화되어, 에너지 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 나라들도 있다. 선진국이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직시해 좀 더 빠르게 국가 배출량 감축과 탈화석연료를 추진하고,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는 한, 세계의 기후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대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온 과거의 청구서를 오히려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과연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건 어느 쪽일까.

2つ目の問いは、私たちは「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を忘れてはいないか、である。1992年にリオで採択された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は「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を掲げた。歴史的に炭素の排出量が多い国ほど削減責任が大きく、開発途上国を支援する義務を負うという原則である。実際、1700年代から現在までの累積排出量の4分の1はアメリカだけから排出された。日本も世界有数の大規模炭素排出国です。経済大国である先進国の行動が、気候危機解決の鍵を握っている。しかしCOPでの議論で先進国は「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を否定し、先進国から開発途上国への実質的な資金調達を回避し、開発途上国が求める「賠償責任」に反対してきた。日本の政府関係者等との対話の際に、開発途上国と先進国の立場や意見の相違による対立が議論の遅延を招いているという趣旨の発言を耳にすることがある。しかし、気候不正義の根底には、旧植民地時代の構造が引き継がれ、グローバルサウスから資源・労働力を搾取し、それらが先進国の消費や豊かさを支えるという、経済植民地主義的で不平等な経済体制がある。先進国が経済発展を遂げて豊かになり、気候危機に対処する能力を持つ一方、搾取され続けてきた国は貧しく、気候変動対策はおろか教育や社会インフラ開発への資金さえ十分ではない。コロナ禍では債務状況をが悪化し、エネルギー危機の影響も甚大だ。先進国が気候変動への歴史的責任に対峙し、迅速に自国の排出量削減と脱化石燃料を推進し、グローバルサウスへの資金調達や技術支援の義務を果たさない限り、世界の気候危機は終わらないだろう。むしろ、自分たちが大量に温室効果ガスを排出してきたツケを開発途上国の人々に払わせているとも言える。不当な要求をしているのは先進国側ではないだろうか。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共通だが差異のある責任原則

4

넷제로는 '낫 제로' ネットゼロは「ノットゼロ」

지금 우리에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기후위기의 영향은 이미 우리 눈앞까지 다가와 있다. 1.5°C 목표 달성도 불확실하다. 그러나 기후정의가 단순히 온도라는 목표 달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5°C에 근접한 현재, 이미 파괴적인 영향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부정의를 만들어온 구조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인권과 생명이 경시되는 사회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기후정의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우리는 체제 전환(system change)이라고 부른다. '인권 없이 기후정의 없다'라는 슬로건은 COP 회의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구호다. 2022년 COP27 개최지인 이집트에서는 시민사회 배제와 시민 탄압이 문제시되었다. 영국계 이집트인 활동가이자 양심수인 알라 압둘 파타흐는 COP27 개최 몇 달 전부터 단식 농성을 이어갔다. COP에 앞서 이집트를

포함한 세계 시민단체가 그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도 COP28(아랍에미리트), COP29(아제르바이잔) 등 시민사회의 민주적 활동이 제한된 나라에서 연달아 COP가 개최되었고, 팔레스타인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 전쟁이 격화되어왔다. 생명조차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후정의는 있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해가 갈수록 더욱 중요하게 와닿는다.

평화와 인권 平和と人権

5

私たちに残された時間は少なく、気候危機の影響は既に目の前に迫っている。1.5℃目標の達成も危ぶまれている。しかし、気候正義は、単に気温目標の達成のみ希求するのものではないと考える。1.5℃に迫りつつある現在でも致命的な影響が現れだしているのも確かである。人々の命を守るためには、そもそもこの不正義の根源である構造自体と向き合い、気候危機だけでなくさまざまな形で人権や人々の命が軽視される社会を変えることが気候正義であると考える。これを私たちはシステムチェンジと呼んでいる。

「人権なくして気候正義なし」というスローガンは、COPの会場でもよく聞かれる。2022年のCOP27の際には、開催地エジプトでの市民社会スペースの縮小や市民への弾圧が問題視された。英国系エジプト人の活動家で、良心の囚人であるアラー・アブデルファターは、COP27開催の数ヵ月前からハンガーストライキを行っていた。COPに先立ち、エジプトを含む世界の市民団体などが、アラーの解放を求め、自由に市民活動ができる場なくして、気候変動対策は成し得ないと声を上げた。COP28はアラブ首長国連邦、COP29はアゼルバイジャンと、市民社会が民主的に活動できる場が限られた国で連続して

さまざまな場面で「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や「ネットゼロ」という言葉を目にする。「ネットゼロ」とは、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から吸収量もしくは除去量を差し引き、合計をゼロにすることだ。現在国や企業が推進している「ネットゼロ」は化石燃料を使用しながら炭素を回収する方針ではあるが、二酸化炭素自体は大気中に残留し続ける性質があるため、2050年までに緩やかに排出ゼロを目指すのではなく、可能な限り早い段階で大幅に削減しなければならない。

対策として「CCS（炭素回収・貯留）」や「DAC（直接空気回収）」、燃焼時にCO2を排出しない水素やアンモニアを「ゼロエミッション燃料」として活用する方策等が推進されている。しかし、これらの技術はコストが高く、技術的な課題も多くされてい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由来でない限り、水素やアンモニアは製造時に多くの温室効果ガスを排出する。化石燃料企業などは自らの事業を継続しながら、植林で排出を相殺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ために必要な土地の規模は莫大で、先住民族の土地を収奪する危険性をはらんでいる。バイオマス燃料は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とされているが、皆伐もしくは森林後退が生じた場合、森林が元の状態に回復するまでに、数十年から100年以上かかることもある。

てCOPが開催されたこと、またパレスチナを含む各地で戦争が激化する中、命すら脅かされる状況下で、気候正義はあり得ないというメッセージが、年年々その重要性を増しているように感じる。

이제는 여러 장면에서 '탄소중립'이나 '넷제로'라는 말을 찾아볼 수 있다. '넷제로'란 온실가스배출량에서 흡수량 혹은 제거량을 빼서 합계를 0으로 만든다는 뜻이다. 심화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배출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일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국가와 기업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화석연료를 계속 이용하면서 탄소를 포집해 '넷제로'를 달성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오래 잔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2050년까지 완만하게 배출 제로를 향해 갈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많이 감축하여야 한다. 어떻게 온실가스를 '흡수'하거나 '제거'하겠다는 것일까. 'CCS(탄소포집·저장)'와 'DAC(직접공기포집)',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나 암모니아 등을 '배출중립연료'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가격이 비싸고, 기술적인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재생에너지에 기반하지 않는 한, 수소와

암모니아는 제조 공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화석연료 기업들은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림 조성으로 배출량을 상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토지가 필요하고, 따라서 원주민의 토지를 강탈할(인클로저) 위험도 크다. 바이오매스 연료는 탄소중립적이라고 여겨지지만, 벌목이나 산림 파괴가 있을 경우 숲이 원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한다. 가짜 '넷제로'에 현혹되지 않고, 탈화석연료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벨렝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있는 곳에서 기후정의 운동에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시민의 힘을 믿고, 기후위기를 포함해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함께 바꿔나가자.

最後に 皆さんがもしベレンに行かなかったとしても、今いる場所で気候正義のムーブメントに連帯し、行動でき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人々の力 (People Power) を信じて、気候危機を含むさまざまな問題を生み出しているシステムを一緒に変えていきましょう。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artwork © Fuyuki Kanai @fuyuki_kanai

artwork © Ho.e.yo @ho.e.yo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photo © Cédric VT

글쓴이
다케다 준

다케다 준
공립대학법인 시즈오카 문화예술대학 부교수. '커피와 기후변화'를 문화인류학의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근간 『커피 2050년 문제』(도쿄 쇼세키)를 썼다. 좋아하는 동물은 고양이.

執筆
武田 淳

武田淳
公立大学法人静岡文化芸術大学 准教授。「コーヒーと気候変動」を文化人類学の視点から研究している。近著「コーヒー 2050年問題」(東京書籍)が発売中。好きな動物は猫。

커피가
우리가 변할까
비싸지게 될까
?
?
?

이러한 배경도 있어 2025년 삼림 파괴에 연루된 상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될 전망이다.❸ '삼림 실사 의무화 규칙(EUDR)'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커피를 필두로 각 농산물이 어디서 재배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장소까지 거슬러 올라가 삼림 파괴가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커피에 의한 삼림 벌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 바로 브라질이다. 브라질에서는 1960년부터 2019년까지 커피 생산량이 416퍼센트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내 농원의 총 면적은 51퍼센트 감소했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물 관리, 토양 개량 등 기술의 향상도 있었지만, 기계 도입으로 인한 작업 합리화의 역할이 컸다고 알려져 있다.❹

일반적으로 커피는 산간 지역에서 재배한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브라질 커피의 59퍼센트는 평탄하고 광활한 땅인 세라도 지역에서 재배된다. 락트인 땅에서는 트랙터나 수확기 등 중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커피 수확 시기에는 높이 4미터가 넘는 거대한 기계가 활약하는 풍경이 펼쳐진다.

❸ Arellano, C., & Hernández, C. (2023) "Carbon footprint and carbon storing capacity of arabica coffee plantations of Central America: A review". *Coffee Science*, 18, no. e207219.

❹ Santos, V. P., Ribeiro, P. C. C., & Rodrigues, L. B. (2023) "Sustainability assessment of coffee production in Brazil",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lution Research*, 30(4), 11099-11118.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한 커피 재배, 오히려 독이 되다?

그러나 이처럼 생산 효율을 추구해온 재배 방법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 브라질에서는 경작 면적을 넓히지 않고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커피'만' 심은 농원이 많은데,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농원은 그늘이 적고 직사광선이 닿기 쉽기에 기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두에 소개한 번 등의 연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2050년까지 적정 재배지가 6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전 세계 평균인 49퍼센트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아그로포레스트리(agroforestry)에 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아그로포레스트리란 숲속에서 재배하는 농업 형태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표의 온도를 낮출 수 있고 토양의 수분량 증가도 도모할 수 있다.

코히「だけ」が植えられた単一栽培の農園では、生物多様性が失われ、コーヒーの木の二酸化炭素吸収量が減少するという結果も出ている。❸ このような背景もあり、EU では 2025 年中に森林破壊に関連する商品の販売を禁止する法律が施行される見込みである。「森林デューデリジェンス義務化規則(EUDR)」と呼ばれるこの法律では、コーヒーをはじめとする農産物がどこで栽培されたのか、具体的な区画までさかのぼって森林破壊が行われていないよう証明することを求めてい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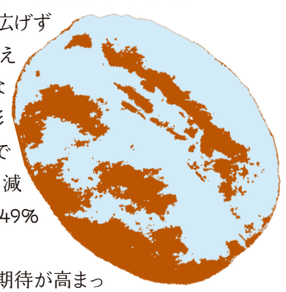
「コーヒーによる森林伐採」への監視が強化される中、例外的な事例が見られた国がある。それはブラジルだ。ブラジルでは、1960 年から 2019 年にかけてコーヒーの生産量が 416% 増加した。それにもかかわらず、国内のコーヒー農園の総面積は 51% 減少した。この成果の背景には、水管理や土壌改良にかかわる技術向上もさることながら、機械導入による作業の合理化が大きく寄与したと言える。❹

一般的に、コーヒーは山間地域で栽培されているイメージがあるかもしれないが、ブラジル産コーヒーの 59% は、平坦で広大な土地であるセラード地域である。開けた土地では、トラクターや収穫機などの重機を使用できるため生産効率を高めることができるからだ。収穫期には、高さ 4 メートルを超える巨大な機械が活躍する風景を見ることができる。

経済合理性を求めたコーヒー栽培が裏目に？

しかし、このように生産効率を追求してきた栽培方法が、今、岐路に立たされている。ブラジルでは、耕作面積を広げずに収穫量を増やすために、コーヒー「だけ」を植えた農園が多いが、単一栽培の農園は、日陰が少なく直射日光が当たりやすいため、気温上昇の影響を強く受ける。冒頭で紹介したバンらの研究ではブラジルで 2050 年までに適作地域が 60% 減少すると予測されており、これは全世界平均の 49% を遙かに上回る数値である。

そこれに伴い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への期待が高まっている。アグロフォレストリーとは、森林の中で作物を栽培する農業形態であり、樹木が日陰を作るため、地表温度を下げることができ、土壌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私たち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
「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にほかならない。

本ディ 관목인 커피는 야생에서 열대우림이 무성한 나무그늘 아래서 자란다. 때문에 아그로포레스트리에 적합한 작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만일 브라질의 커피 농장을 전부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현재의 약 75퍼센트의 농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❺

그럼에도 브라질에서 아그로포레스트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생산자는 소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수확 기계는 수풀이 우거진 숲을 지나갈 수 없어서 재배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중에서는 대형 중장비를 구매하기 위해 큰 빚을 낸 사람도 많다. 또한 아그로포레스트리는 기계화할 수 있는 공정이 적어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한창 발전 중인 브라질에서 농업 인구는 이미 감소 추세에 있고, 커피산업 전반에서도 일손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일손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문제다.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연결 고리

지금까지 브라질을 중심으로 커피와 기후변화 문제를 살펴보았다. 앞으로 커피 수확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생산자의 수입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의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멀리 떨어진 커피 산지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를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브라질 커피와 우리의 생활이 밀접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브라질 커피의 역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브라질에 커피가 전해진 것은 1727년의 일이지만, 본격적인 재배가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선 이후다. 1822년 당시 브라질제국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면서, 커피 생산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브라질 커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모여든 것도 한몫했다.

❺ Gomes, L. C., Bianchi, F. J. J. A., Cardoso, I. M., Fernandes, R. B. A., Fernandes Filho, E. I., Schulte, R. P. O. (2020) "Agroforestry systems can mitigate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coffee production: a spatially explicit assessment in Brazil", *Agriculture, Ecosystems & Environment*, 294:106858.

커피는 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을까. 그 이유는 한 그루의 커피나무에서 채취되는 커피콩(종자)의 양이 적기 때문이다. 커피나무 한 그루에서 한 해에 수확되는 열매는 원두로 환산하면 204~365그램, 시판 원두 한 봉 분량밖에 되지 않는다. 즉, 커피 재배로 생계를 이어간다면 광대한 토지를 개간하여 나무를 대량으로 심어야 한다. 또한 열매는 수확기에 한꺼번에 열리기에 가족농으로는 일을 감당할 수 없어, 많은 계절노동자가 필요하다.

초기의 브라질커피는 노예제도에 토대를 두고 성립되었다. 그러나 1888년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당시 농장주들에게는 어떻게 노동자를 확보할 것인지가 큰 과제였다. 이에 브라질 정부가 나서서 해외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이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당시 이주노동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의 수분량의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저목재인 커피는 숲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으면 토양의 수분량 증가도 도모할 수 있다. 저목재인 커피는 숲속에서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있으면 토양의 수분량 증가도 도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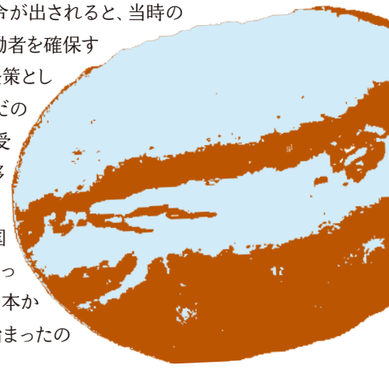
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つながり

ここまで、ブラジルを中心に、コーヒーと気候変動の問題を見てきた。今後、コーヒーの収穫量が減少することは、生産者の収入が下がることを意味する。つまり、私たち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にほかならない。そのような意味で、遠く離れたコーヒーの産地で起きている現象は、決して他人事ではないのである。そのことをあらためて強調するのは、ブラジルコーヒーと私たちの生活は密接に関わっているからである。最後に、ブラジルコーヒーの歴史から日本と韓国の「つながり」を見ていきたい。

ブラジルにコーヒーが伝わったのは 1727 年だが、本格的に栽培が始まるのは 19 世紀に入ってからである。1822 年にブラジル帝国(当時)がポルトガルから独立したことを契機に、コーヒーの生産は急速に拡大した。ブラジルコーヒーが成長できた背景には、世界中から多くの労働者が集まってきたことが挙げられる。

なぜ、コーヒーは多くの労働力を必要とするのか。その理由は、1 本のコーヒーの木から採れる豆(種子)の量が少ないことに起因する。1 年間に収穫される実は、焙煎豆に換算すると 204~365g(スーパーなどで販売されているコーヒー豆 1 袋分)程度にしかならない。つまり、コーヒー栽培で生計を立てるには広大な土地を開墾して大量の木を植える必要がある。しかし、収穫期には一斉に実がなるので、家族だけでは収穫が追いつかず、大量の季節労働者が必要となる。

初期のブラジルコーヒーは、奴隷制度によって成り立っていた。しかし、1888 年に奴隷制廃止令が出されると、当時の農園主たちにとっていかに労働者を確保するかが課題となった。その解決策としてブラジル政府が取り組んだのが、海外からの移民労働者を受け入れることだった。当時の移住者は、イタリア、ポルトガル、スペインなどのヨーロッパ諸国が中心だったが、その一翼を担ったのが日本人移民であった。日本からブラジルへの集団移住が始まったの



스페인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유입되었는데, 이 가운데는 일본에서 온 이주노동자도 있었다. 일본에서 브라질로 집단 이주가 시작된 것은 1908년이다. 고베 항에서 출발한 '가사토마루(笠戸丸)' 호에 승선한 781명은 상파울루로 이주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커피 농장에서 노동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브라질산 커피를 많이 수입하게 되었다. 한국에 처음 커피가 수입된 것은 1883년이며, 브라질산 커피콩은 1920년경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다. 이처럼 우리와 브라질 커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커피 2050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

'커피 2050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뉜다. '생산자의 빈곤'과 '소비자의 커피 부족'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커피 원두 외에 부수입을 올리기 위한 대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 카스카라(cascara)가 있는데, 이는 커피 원두 주위에 붙어 있는 과육이나 껍질을 말한다. 먹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원두 채취 과정에서 버려져왔다. 생산자들은 카스카라를 활용해 새로운 상품(차나 디저트 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개선해보려 하고 있다.[6]

한편 소비할 커피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지금은 서늘해서 재배에 적합하지 않던 지역에서도 커피 재배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정 재배지가 이동한다고 해도, 그 지역 사람들이 해오던 일을 그만두고 커피 농가로 전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따라서 커피 부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그럼 우리는 가격이 계속 오르는 비싼 커피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일까.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즉, 그 배경이 되는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중요하다. 앞서 "우리가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곤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리스크를 생산자들이 감수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 '생산자'들은 증증 개발도상국에 산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나라에서 만든 커피 한 잔을, 기후변화의 원흉을 만들어온 우리가 맛보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 잔의 커피는 기후불평등이란 배경 위에서 성립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커피가 비싸지는 미래를 선택할지, 지금 우리가 바뀔 것인지. 그 답은 분명하다.

[6] 武田淳(2015)『コーヒー2050年問題』東京書籍

は1908年である。神戸港から出港した「笠戸丸」に乗船した781人がサンパウロに移住し、彼らの多くがコーヒー農園での労働に従事した。

このような背景によって、東アジアにはブラジル産のコーヒーが多く輸入されるようになった。韓国に初めてコーヒーが輸入されたのは1883年であり、ブラジル産のコーヒー豆は1920年頃に釜山港を通じて入ってきた。このように、私たちとブラジルコーヒーは密接にかかわっているのである。

「コーヒー2050年問題」を解消するために私たちができること

「コーヒー2050年問題」は、大きく2つの問題に分けられる。「生産者の貧困」と「消費者のコーヒー不足」である。前者については、生産者の所得を守るために、豆以外の部位から副収入を得る取り組みが活発に行われている。代表的なのは、カスカラ(cascara)と呼ばれる商品でで、これは、コーヒー豆の周りに付いている果肉や果皮を指す。いずれも食べることができるが、豆を取り出す過程で廃棄されてきた。そのカスカラから新たな商品(お茶やスイーツなど)を創り出すことで、気候変動により減少する生産者の収入の向上を図ろうとしている。[6]

また、コーヒー不足の解消について、「新たな産地」に期待が寄せられている。温暖化がこのまま進むと、これまで涼しすぎて栽培に適さなかった地域で、コーヒー栽培が始まる可能性がある。しかし、コーヒーの適作地域が移動したとしても、その地域で暮らす人々が慣れた仕事を辞めてコーヒー農家に転職するとは限らない。そのため、コーヒー不足は避けられないと予想される。では、私たちは、値上がりする高いコーヒーを飲み続けるしかないのだろうか。

「コーヒー2050年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問題の「本質」に向き合うしかない。つまり、その背景にある温暖化をどのように食い止めるかが重要である。先ほど「私たちがコーヒーを飲むことができるのは、『気候変動によって貧困に陥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リスクを生産者が背負ってくれているからだ」と述べた。その「生産者」たちは、往々にして開発途上国で暮らしている。言い換えれば、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が少ない国の人たちが作った1杯を、温暖化の元凶を作り出してきた私たちが味わっているのである。このように、1杯のコーヒーは、気候的不平等を背景に成立していると言うことができる。コーヒーが高級品になる未来を選ぶのか、今、私たちが変わるのか。その答えは、明らかだ。

'커피 2050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

「コーヒー2050年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は、
問題の「本質」に向き合うしかない。

artwork © Jeong Un @jeongun.jpg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気落ちする前に、気づく

엄청난 정보와 지식은 우리를 들뜨게도, 혼란스럽게도 만든다. 이 잡지를 읽는 동안 브라질과 아마존, COP30,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어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면, 일단 침착하자. 이제는 뻑뻑한 눈을 풀어주고 머릿속을 비우며 휴식을 취할 시간이다.

膨大な情報と知識は私たちを高揚させもすれば、混乱させもする。この雑誌を読みながら、ブラジルとアマゾン、COP30、気候危機の問題について、読者はあまりに多くのことを一気に頭に詰め込んだことだろう。今は疲れた目を癒やし、頭の中を空っぽにして休息をとることにしよう。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PANIC COPING NOTEPAD

메모를 해야 하는데
노트가 없나요?
당황하지 마세요!
여기 무엇이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메모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メモを取りたいけどノートがない？慌てなくても大丈夫！なんでも自由に書けるメモ帳が用意されています。

WORD PUZZLE

문제
1. OOO30
2.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3. 생물다양성협약
4. Brazil Amazon OOOOO
5. 브라질 뿌리 식물, 타피오카의 재료
6. 생물자원수탈
7. COP30 개최지
8. COP30 불참국
9. UN기후변화협약
10. 협력적 노력, 공동체적 작업
(아마존 원주민 용어)

問題
1. OOO30
2. 国別削減目標
3. 生物多様性条約
4. Brazil Amazon OOOOO
5. ブラジルの根菜, タピオカの原料
6. 生物資源の収奪
7. COP30 開催地
8. COP30 不参加国
9. 国連気候変動枠組条約
10. 協力的努力、共同体作業
（アマゾンの先住民の言葉）

R	Z	C	Q	O	C	C	F	B	O
U	Q	C	O	G	D	O	F	E	O
N	C	X	F	N	I	M	P	L	Y
F	P	U	X	I	R	U	M	E	S
C	G	A	T	L	A	S	H	M	U
C	W	Y	T	E	T	F	B	A	S
C	B	S	P	M	U	B	P	Z	A
V	B	D	Y	Z	Q	Y	W	J	N
B	I	O	P	I	R	A	C	Y	J
E	C	A	S	S	A	B	A	C	N

정답 책을 뒤집어 확인하세요.

正解本を裏返して確認してください。

R	Z	C	Q	O	1C	C	F	7B	O
9U	Q	C	O	G	D	O	F	E	O
N	C	X	F	2N	I	M	P	L	Y
F	10P	U	X	I	R	U	M	E	S
C	G	4A	T	L	A	S	H	M	8U
3C	W	Y	T	E	T	F	B	A	S
C	B	S	P	M	U	B	P	Z	A
V	B	D	Y	Z	Q	Y	W	J	N
6B	I	O	P	I	R	A	C	Y	J
E	5C	A	S	S	A	B	A	C	N

1. Conference of the Parties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기후 변화 대응 방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2.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세계 각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할지 5년 단위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

3.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 내 생물자원의 주권을 확인하는 국제 협약.

4. "Brazil Amazon Atlas"
하인리히 빌 재단이 만든 브라질 아마존에 관한 책자.

5. Cassaba
브라질 뿌리 식물, 타피오카의 재료. 아마존 원주민 등 전통적 공동체에 중요한 작물.

6. Bioprivacy
생물자원수탈. 선진국 식품·의약 기업들이 아마존과 같은 곳의 생물학적 자원을 무단 이용하는 행위.

7. Belém
브라질 북부 아마존 강 하구에 있는 도시.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 곳.

8. USA
COP30 불참국. 미국의 COP 불참은 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는 2026년 1월에야 발효되지만, 미국은 이미 협상 테이블에서 자취를 감췄다. COP30 주요 참가국 중 1월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유일한 나라.

9.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모든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

10. Puxirum
협력적 노력, 공동체적 작업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 용어.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HEINRICH BÖLL STIFTUNG
SEOUL
East Asia | Global Dialogue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ハインリヒ・ベル財団東アジア事務所

kr.boell.org

동아시아 사회가 지금보다 덜 바빠진다면, 그것만으로도 기후목표를 꽤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東アジアの社会が今より少しゆとりを持てれば、
それだけでも気候目標の達成に近づけ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우리는 1997년부터 민주주의, 비폭력, 생태,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에 사무소를 운영 중입니다. 재단의 이름은 대표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와 『노동 의욕 감소를 위한 일화(Anekdote zur Senkung der Arbeitsmoral)』의 저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에게서 따왔습니다. 그릇된 신념과 근면함이 만나 일어난 사회의 비극들, 근면함과 문서 집착이 만나 숲을 갉아먹는 관료주의를 반면교사 삼아, 약간의 게으름과 낮잠을 권장합니다.

私たちは 1997 年以来、民主主義・非暴力・エコロジー・連帯を中心に活動してきました。本部はドイツ・ベルリンにあり、世界各地に事務所を展開しています。財団名は『カタリーナ・ブルームの失われた名誉』と『労働意欲の低下に関する逸話』の著者、ドイツの作家ハインリヒ・ベルに由来します。誤った信念と勤勉さが生んだ社会の悲劇、勤勉さと書類執着が森をむしばむ官僚主義を反面教師とし、少しの怠けとお昼寝を勧めています。

하인리히 뵐 재단
기획 COP30
부대 행사

ハインリヒ・ベル財団
企画 COP30
サイドイベント

★ Reaffirming the need for Public Climate Finance : No to False Solutions ★

그런데 이제,
열릴지 못 열릴지 아직 모릅니다.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ただし、
開催できるかどうかはまだ分かりません。
落ち着いてお待ちください！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If you're done napping:
boell.de/en/cop-climate-change-conference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침착할 것 DON'T PANIC パニクるな

パニクるな

COP30 edition